

기독일보



"예 할 때 예 하고 아니오 할 때 아니오 하라" (마5:37) WWW.CHDAILY.COM THURSDAY, March 4, 2010 Vol.235

아이티, 지진 후 4만 명 이상이 '예수 영접'

CMBH에 보고된 수만 집계한 수치… "큰 부흥 준비 이뤄져"

아이티에서 지난 1월 12일 있었던 대지진 이래로 4만 명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고 현지의 한 선교 단체가 밝혔다. 아이티선교협회(CMBH: Confraternite Missionaire Baptiste d'Haiti)는, 지진 참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단체로 들어온 보고만을 집계했을 때, 이 기간 기독교로 개종한 아이티인의 수가 총 40,127명에 달한다고 침례교신문(BP)을 통해 알렸다.

CMBH는 미국의 플로리다 침례교회(FBC)에 의해 설립된 아이티 선교 단체로, 현재 아이티에서 사역하는 총 900여명의 침례교회 목회자, 선교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FBC 선교 협력부 디렉터이자 CMBH 코디네이터인 크레이그 컬브레스에 따르면 최근 아이티에는 이달 국가 전체적으로 금식 기도 기간이 선포되기도 하는 등 영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는 "지금 아이티에서는 큰 부흥을 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지진으로 폐허가 되다시피 한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는 많은 교회들에서 집회가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고, 이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영적인 인도를 구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지금껏 개종한 40,000여 명 가운데 28,000여 명이 포르토프랭스에서 나왔을 정도다. "이런 모습은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며 "마치 9/11 이후 미국의 분위기와 흡사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지진 이후 많은 아이티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 사진은 CMBH의 루이 라브랑슈 목사가 최근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 ⓒFBC

CMBH는 지진이 있기 전부터 아이티에서 2015년까지 15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목표로 사역해 왔다. 컬브레스는 최근의 영적인 부흥은 CMBH의 비전이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전했다. CMBH는 향후 3개월간 아이티 14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전도 사역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FBC은 53,000달러에 달하는 성경과 전도책자, 음향 기기 등을 아이티에 지원한다.

한편 CMBH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뿐 아니라, 지진으로 발생한 난민들의 긴급 구호를 위해서도 현재까지 437,750끼의 식사에 해당하는 쌀을 포르토프랭스와 다른 피해 지역들에 제공해 왔다. 〈손현정 기자〉

한인 · 라티노 커뮤니티간 화합을 위한 조찬기도회



한인 · 라티노 커뮤니티 목회자들이 가든스위트호텔에서 커뮤니티간 화합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갖고 있다. ⓒ이태근 기자

코리안 커뮤니티와 라티노 커뮤니티간의 친목을 위한 조찬기도회가 27일 오전 7시 30분 가든스윗트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기도회에는 라티노 커뮤니티 목회자들과 한인 커뮤니티 목회자 5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서로간 친교를 나눴으며 4·29 LA 폭동과 같은 일이 코리안 커뮤니티와 라티노 커뮤니티 간에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를 존중하며 화합하며 가자고 기도했다. 행사를 주관한 코리안 라티노 커뮤니티 화합 조찬기도회 김태현 대표는 "라티노들이 한인에게 고용되어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들을 대하는 한인 고용주들의 태도가 갈수록 불손할 경우 라티노들에 의해 LA폭동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서로를 알아가고, 더욱 화합함으로 그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도회를 갖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기도회에는 한인 라티노 커뮤니티 외에도 흑인 목회자와 백인 목회자도 함께 참여해 커뮤니티간 화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태근 기자〉

이영호 교수, "이슬람화 경각심 갖고 깨어 기도할 것"강조

전 세계 복음화 위해 노력하지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 후 전 세계 250여 개국 1만 6천 3백여 종족 중 9천 6백여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갔다. 전 세계의 복음화를 앞둔 이 때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도전이 던져졌다.

26일 오후 7시 30분 LA한인침례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열린 기도합주회에서 말씀을 전한 풀러신학대학교 이영호 교수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독교가 노력하고 있지만 이슬람의 정책으로 인해 교회가 이슬람에 먹힐 상태"라며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슬람이 전 세계 이슬람화를 위해 시작한 5가지 정책 중 2가지를 소개하며 기도할 것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슬람이 전 세계 이슬람화를 위해 시작한 정책 첫 번째는 다산정책이다. 모슬렘은 평균 8명의 자녀를 출산하는데 출산율이 적은 유럽 등의 나라에 이민을 가 많은 자녀를 낳고 그 나라와 지역에 모슬렘 수를 성장시킨다. 10~20년 후 모슬렘은 그 지역에서 장악할 수밖에 없다"며 출산율 증가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이슬람의 두 번째 정책은 학교를 세워 우리들의 자녀들을 알게 모르게 모슬렘화 시키는 것으로 각 주 3~4개의 명문학교가 이슬람에 의해 설립됐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다"며 "실제로 이 학교에 다니는 부모로 부터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 다니는 줄 이제 알았다며 하소연하기도 해오기도 했다"며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교수와 LA한인침례교회 성도들은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이슬람의 종주국인 터키에서 열리는 2010 에베소 연합중보기도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이슬람권의 영적회복과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이태근 기자〉





협찬: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H ORGANIZATION 특별후원: 기독일보 아시아나항공

명품 건강검진



대한민국 일등 병원 '아산병원' 미주 일등 기독신문 '기독일보' 와 함께하는 미주 일등 관광 'LA아주관광' 의 명품의료관광!

"
백만불 대통령상 수상에 참일은
아주관광이 준비한 또 하나의 특별한 기회!
한국최고의 아산병원과 함께하는
명품의료관광의 기회를 놓치지마세요!
"



- 교민들을 위한 프리미엄 VVIP의료서비스(미주교민 특별우대)
  전문의료진을 아주관광에 파견하여 무료 건강상담 및 건강 증진 센터 프로그램 수행
  45명의 진료과목별 전문의 상주 - 즉각적 대처 가능 -
  검사다음날 결과확인 서비스 제공, 암 발견시 5일이내 진료서비스 제공
- 한국내 1위, 서울아산병원
  스페인 워보 매트릭스 랭킹서 국내 병원 중 유일하게 세계 100대 병원 선정 (2009년 6월 17일)
- '2009 글로벌 고객만족1위' 2년 연속 수상한 서울아산병원
  "환자중심의 권리증진 실천, 다양한 고객서비스 활동" 높은 평가 '의료의 질' 뿐만 아니라
  고객서비스에서도 한발 앞서 일본능률협회컨설팅, 10만명 대상 고객만족도 조사 (2009년 7월 24일)
- 국내 의료계 최초 암센터 부문, 대한민국 명품 선정
  2009 The Proud 대한민국 명품 서울아산병원 암센터
  10대 암 중 9대 암 수술 실적 1위 및 6개 암 환자 수술 최다 시행 병원

(모두 포함)
항공료 + 호텔(3박) + 식사 + 공항 픽업 및 교통서비스 + 서울시내투어

° 총 4회 출발 : 4월 1일(4월 3일 검진), 4월 15일(4월 17일 검진),
5월 6일(5월 8일 검진), 5월 27일(5월 29일 검진)
(고객이 원하시면 미리 출발하셔서 검진일에 합류 가능
검진 결과후, 미국으로 돌아오는 날짜 자유롭게 선택 가능)

기독일보 - 안심 프로그램 남/여 $3,499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울아산병원 안심프로그램
혜택 :
기독일보 고객께만 주어지는 특별 혜택
1. 기독일보 고객만을 위해 특별히 구성된 프로그램('머리부터 발끝까지-안심프로그램')
2. 검진 다음날 서울 시내투어 무료 제공
미주교민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특별 혜택
1.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검진 결과를 검진 다음날 바로 받아볼 수 있음
2. 이상소견 발생시 2~3일내로 전문의와의 면담이 주선됩니다(통상 1~3개월 소요)

SINCE 1984 – 관광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믿음직한 명품관광은 역시 아주관광 입니다!
www.usajutour.com 아주좋은 JJ Tours CST # : 2052210-10 아주관광
대표전화 (213)388-4000
서울 02-522-8686
1-800-933-3011
ASAN FOUNDATION 아산재단 서울아산병원
아산병원 LA센터: 213-387-9090

유럽도 '멀티 사이트 교회' 증가… 재부흥 열쇠 될까

■ 다양한 사회 계층에 보다 효과적인 접근 용이

유럽에서 전체 교회 출석률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미국 교회의 멀티 사이트(multi-site) 모델을 수용한 교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 교회 성장 연구기관이 밝혔다.

미국의 리더십 네트워크는 세계의 교회 성장에 관한 다양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이 분야 전문 기관으로, 최근에는 유럽의 멀티 사이트 교회들에 관한 흥미로운 보고서를 내놓았다.

리더십 네트워크에서도 유럽 교회 전문가인 조앤 애플턴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유럽의 포스트-크리스천 정황에서 멀티 사이트 모델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유럽에 멀티 사이트 교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계속해서 퍼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멀티 사이트 교회는 현대 교회의 한 모델로, 교회가 없는 곳에 새로운 교회를 지을 때 그 교회를 독립적인 교회로서가 아니라 본부가 될 수 있는 교회에 속한 지부 개념으로 세우는 것이며, 따라서 교회 개척(church planting)과는 다른 의미다. 미국에서는 전체 교인 중 10분 1이 멀티 사이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정도로 오늘날 보편화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여의도순복음교회나 온누리교회를 예로 들 수 있다.

교회들이 멀티 사이트 모델을 수용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으나 교회 성장 전문가들은 가장 큰 이유로 본부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는 작은 지부 교회들을 지역 사회 곳곳으로 침투시킴으로써 그 교회의 사역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확장시켜나갈 수 있다는 이점을 손꼽는다.

보고서는 최근 유럽에서 늘어가고 있는 멀티 사이트 교회들 역시 새로운 교회 모델의 이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그 대표적인 예로 세 개의 교회를 소개했다.

◇스위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펠로우십=청년 복음화 위한 전략

먼저는 스위스의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펠로우십 무브먼트다. 1996년 취리히에서 시작된 무교단주의의 이 교회는 1999년부터 유럽 내 9개 국가에 총 40개 교회를 개척했다. 이 교회가 멀티 사이트 모델을 수용한 것은 지난 2007년 ICF 취리히 교회에서 인근의 라퍼스빌과 빈터투어에 지부 교회, 즉 '캠퍼스'를 세운 것으로부터였다.

ICF는 스위스 청년 복음화를 비전으로 시작된 교회로, 이들이 멀티 사이트 모델을 시도하게 된 이유에 관해 ICF 취리히 교회 코치인 엔디 스트러플러는 "우리는 본부 교회를 중심으로 30분 간격의 동심원을 그리며 각 지점에 캠퍼스를 하나씩 세우기 시작했다"며 "이런 식으로 해서 스위스에서 가장 큰 도시인 취리히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전략적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ICF 취리히 교회는 네 개의 캠퍼스를 더 설립할 계획에 있다.

ICF 취리히 교회는 현재 있는 세 개의 캠퍼스에서 원래는 모든 예배를 목회자가 직접 인도했지만, 지금은 그 중 한 곳에서는 영상 장치를 이용해 예배를 드린다. 스트러플러는 "처음에는 교인들이 많이 낯설어했지만, 지금은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ICF 취리히 교회는 젊은 층을 겨냥한 교회답게, 각 곳의 캠퍼스에서 많은 집회와 소모임 등을 갖고 있다.



덴마크의 AAVM 교회. 커뮤니티 간 네트워크로서의 교회를 지향하는 이 교회는 멀티 사이트 모델 안에서도 각 교회의 독립성을 지향한다. ⓒAAVM

◇영국 홀리 트리니티 브롬프턴=다양한 교인들에게 맞춤 교회 제공

한편, 영국의 홀리 트리니티 브롬프턴(Holy Trinity Brompton) 역시 멀티 사이트 전략을 실험해 보고 있는 런던의 한 교회다. HTB는 최근 같은 런던 내인 세인트 폴즈 온슬로우 스퀘어에 캠퍼스를 설립했다. HTB가 새로운 교회 모델을 시작하게 된 일부 이유는 교인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인원을 모두 수용할 만한 건물이 런던 내에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더 크게 작용했다.

HTB 행정목사인 마일스 툴민에 따르면, 이 교회는 원래 한 건물에서 주일마다 다섯 번의 예배를 드렸고 그 가운데 네 번의 예배는 교인들이 빽빽이 들어서 자리조차 없는 상태에서 드려야 했다. 그는 "우리 교회가 기존 건물에서 가능한 성장을 모두 다 이뤘을 때, 우리가 가진 'DNA'를 유지하면서도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고, 그것이 멀티 사이트였다"고 말했다. HTB는 "영국을 재복음화하고, 복음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역하고 있고, 멀티 사이트는 그들의 비전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모델이었다는 것이다.

현재 HTB는 두 곳의 캠퍼스에서 각 4회씩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한 곳에서는 영상 예배를 드린다. 또한 멀티 사이트의 이점을 최대화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각 캠퍼스가 특색을 갖도록 하고 있다. 브롬프턴은 전통적인 교회 경험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기존의 교회 분위기를 고수하는 반면, 세인트 폴즈 온슬로우 스퀘어는 편안한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보다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한다.

◇덴마크 AAVM=독립적 교회들의 네트워크 지향

덴마크에서도 이같은 멀티 사이트 교회가 생겨나고 있다. 수도인 코펜하겐과, 알보르그와 아르후스에 캠퍼스를 갖고 있는 AAVM은 한 단계 더 진보한 모델을 지향한다. 알보르그 캠퍼스의 담당자 켈드 달만은 각 캠퍼스를 "일종의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대 150명을 넘지 않는 교인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고, 이 커뮤니티가 교회인 셈이다.

이처럼 유럽 각처에서 퍼져 가고 있는 멀티 사이트 교회들은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에 있고, 유럽 내에서 얼마나 성공적인 모델로 확인될 지의 여부는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고서는 요약했다.

〈손현정 기자〉

PCUSA 한인교회, 미국 개척교회 롤모델로 우뚝

개척교회연합I(NCD), 한인교회 성공사례 소개 및 섬김에 공로패

120년 전 낯선 땅 조선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이제는 열매가 되어 미국인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바로 미국장로교회(PCUSA) 체로키, 그레이터아틀란타, 노스이스트조지아 노회의 50여 개 개척교회연합인 NCD(New Church Developement)에서 한국교회의 성공사례를 롤 모델로 적극 홍보하고 나선 것이다.

2월 27일 베다니장로교회(담임 최병호 목사)에서 열린 NCD 모임에서는 개척한 지 3년 만에 자립한 교회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인 예수소망교회와 노령화된 교회를 500명의 활발한 교회로 성장시킨 오코니장로교회(담임 팸 드리젤 목사)가 성공사례로 소개됐다.

가정교회를 시작으로 스와니에 성전을 구입해 자립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소개한 박대웅 목사는 준비해 온 교회 영상을 통해 지난 3년 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눴다.

NCD 디렉터 사라 헤이든 목사는 "(영상에서 비춰진) 교인들의 얼굴이 얼마나 은혜 속에 지나온 3년 인지를 상상하게 해 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미국교회는 물론 중동, 케냐, 잠비아, 베트남, 타이완, 멕시코 등 소수민족 총 50여 개척교회의 모임인 NCD의 연중 최대 행사인 연합예배는 성공목회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개척교회 지원금을 모금하는 장(場)이 되고 있다.

지난 4년 간 NCD 자문위원으로 섬겨온 최병호 목사(베다니장로교회)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개 교회 울타리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개척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살피고 조언하고 물질적으로도 도와야 한다"고 집회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개척목회 성공사례로 소개된 예수소망교회 박대웅 목사 부부

〈권나라 기자〉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 행 인 : 조요한 편집국장 : 이재학 광고국장 : 이인규
지 사 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번호 : (213) 739 - 0408
이메일 : chdaily@gmail.com
주소 : LA/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이민교회 문답]

〈11〉 아이엠처치 정종원 목사

'2세 사역, 청소년의 열정 코드에 문제 맞춰야'


▲아이엠처치 정종원 목사

이민교회는 세대교체, 교회연합, 2세 사역, 부흥 등 다소 무거운 주제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에 본지는 목회자의 여론을 수렴해 한인교회의 미래와 나아갈 바를 조명하고자 한다.

열한번째 만남은 아이엠처치의 정종원 목사다. 정 목사는 국내 예배곡이 거의 전무하던 80년말과 90년대 초 '내 입술로', '내 영이', '이 땅에 오직 주 밖에 없네' 등의 한국인의 정서가 물씬 묻어나는 예배곡을 발표해 찬양과 경배사역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임마누엘선교단에서 사역하던 그는 1994년 인천 효실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고 2001년 7월 도미해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린 예배담당목사로 8년간 사역하다 지난해 10월 1367 W. 베니스에 아이엠처치를 개척했다.

찬양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사역하며 많은 청소년들을 봤을 것인데 교회를 떠난 이들을 다시 이끌어오기 위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는 청소년층이 얇다는 것인데 교회에 있다가 떠났든 교회를 찾지 않았던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청소년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주위에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영향력 있는 사역자를 초청해 집회를 개최하면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드는데 이것만 봐도 청소년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주위에 있는 만큼 교회가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흥미가 없는 이들을 억지로 오게 할 수는 없기에 스스로 교회에 들어 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그들이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세대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이들을 이해하려는 열린 사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공감대가 많은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대화하며 잘 지냅니다. 교회도 가정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라고 세대가 다른 이들이 모였다는 것을 이해하며 존중할 때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먼저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대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안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면 청소년들에게 어울리는 열정의 코드로 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지금 현 시대에 교파를 넘어서 열정을 불태우는 통로가 있다면 찬양과 메시지 입니다.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컴퓨터라고 해도 성능의 차이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처럼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들의 심장에 인스톨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자신의 노래와 고백이 되게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들의 위치와 사명을 전달해 주는 메시지로 들려질 수 있다면 그들은 모여 들 것이고 실제로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가 지금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민족적인 교회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2세들이 잘 성장하는 미국교회를 가지 않고 한인교회를 찾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1세들의 무례함과 모순된 지도력을 보기도 하는데 왜 꼭 한인교회로 와야 할까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만으로는 이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제 영향력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 지도자가 문제입니다.

찬양과 메세지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지도력을 준비시키기 위해 교회가 해야 할 것은 2세를 이끌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이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일 입니다. 우리가 학생시절에 사명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왔던 지도자와 특별한 수련회나 집회가 있었던 것처럼 전략적으로 그런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메시지를 감당할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아는 만큼 인도할 수 있고 경험한 것 만큼 도전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이러한 계기는 예배 인도자 양성을 위한 워십 스쿨과 미래의 지도력을 준비시키는 비전 스쿨 등을 통해 양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배의 심장을 가진 젊은 세대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 환경을 만난 곳에는 헌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회복되고 또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들의 빈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채울 노래와 메시지를 가진 지도자들을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음악이든지 메시지든지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다 문화적인 것입니다. 노래를 보더라도 어떤 지도자들은 기독교 음악장르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기독교의 음악장르를 음악만으로 구분하지 않고 가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또한 이제는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그들의 이야기와 고백이 될 노래가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지도자가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에 도움을 줄 지도자가 부족하다면 장단기적으로 그러한 지도자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의 역할이 큰 것 같고 인력이 많은 큰 교회에서 많은 지도자를 양성하고 훌륭한 강사를 초청해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 개척을 하신 이유가 2세 사역과 관련된 것입니까?

개척은 건강한 교회가 있다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고 싶었고 실천하고자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통해 증거되어야 할 일이 바로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엠처지는 부르신 부르심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태근 기자〉

"간병사역, 노인케어로 선교 사역 동참"

LA 교역자협의회, 간병사역 세미나 개최

LA 교역자협의회(회장 표세흥 목사)주최, 간병사역과 노인케어에 대한 세미나가 지난달 27일 나성한인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강의는 Christ's Enterprises라는 비영리 세계 선교 단체에서 의료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자넷 최 박사가 전했다. 미국 이민 온 지 45년 된 최 박사는 LA 카운티 공무원인 보건 간호사로서 다년간 근무했으며, 의료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고 병원과 양로원을 설립,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목회학 박사이기도 하다.

미국 의료 시스템에 해박한 최 박사는 노인 건강 케어 컨설턴트로서 양로원 현황과 정부 혜택에 대해서도 소개했으며, 의료계 종사자 및 간호 종사자의 직능별 계통 시스템에 대해 전했다.

자넷 최 박사는 O.C에서 간호사, 간병인들에게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교육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지재일 기자〉

소중한 사람들, 소외된 이웃과 함께한 8년

창립 기념 행사 및 크리스천 학교 설립 감사 예배 드려

거리의 소외된 이웃을 향해 매일 같이 떡과 복음을 전해온 소중한사람들(대표 김수철 목사)이 창립 8주년을 맞았다. 소중한사람들은 지난 25일 오전 11시 클라리온 호텔에서 창립 기념 및 멕시코 엔세나다 인디오 크리스천 학교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다.

소중한사람들은 홈리스들을 위한 센터를 마련했다가 인근 주민의 항의와 센터를 철수 하는 등의 어려움도 겪었으며 한국 소중한사람들의 사역 규모 확대, 북한 동포 어린이들을 향한 사랑과 타민족 향한 사랑 실천 등을 해오며 8년간 사역해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타민족 향한 사랑 실천의 일환인 멕시코 엔세나다 인디오 크리스천 학교 설립 경과보고 등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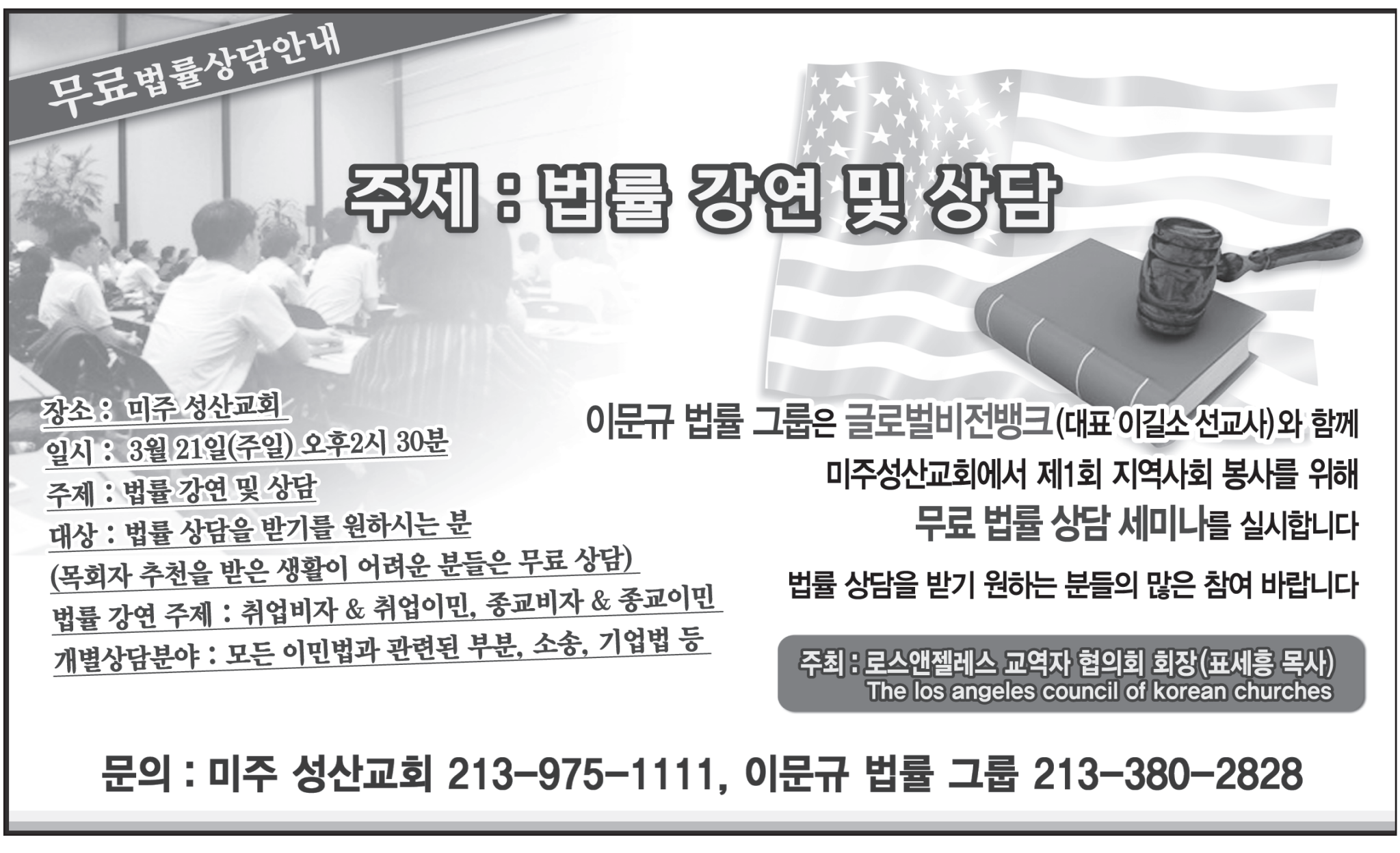
〈이태근 기자〉


소중한사람들 8주년 기념예배 및 멕시코 엔세나다 인디오 크리스천 학교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









"대한독립 만세, 남가주 3.1절 기념예배 드려"

남가주한인목사회 주최, 3·1절 91주년 기념 예배


남가주한인목사회 목회자들이 3·1절 기념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태근 기자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일본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3·1절을 기념하는 예배가 지난 달 28일 오후 4시 벧엘장로교회(변형익 목사)에서 드려졌다.

남가주한인목사회의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70여명이 참여했으며, 예배는 91주년을 맞는 3·1절인 만큼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남가주한인목사회 부회장 오세훈 목사의 대표기도, 서기 박순길 목사의 성경봉독, 부회장 변형익 목사의 설교, 특별기도, 애국가 제창, 독립선언문 낭독, 만세삼창, 3·1절 노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별기도에서는 수석부회장 박효우 목사가 '조국을 위하여', 협력부회장 최순길 목사가 '동포사회를 위하여', 부회장 박종대 목사가 '미국을 위하여', 협력부회장 송영일 목사가 '기독교계를 위하여' 기도했다.

변형익 목사는 에스더 4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본문으로 한 '진정한 애국자'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이 시대는 사람은 많으나 진정한 애국자가 없다"고 한탄하며 "에스더와 유관순 같은 애국자가 많아야 한다"고 전했다.

변 목사는 "애국자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기에 지금의 우리가 이러한 삶을 누리고 있다. 우리에게도 독립의 감격이 살아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그러한 감격을 아는 이들이 적고, 사람은 많으나 애국자가 없는 현실"이라고 한탄하며 "스포츠 경기 등을 통해 일본을 이길 때 드는 감정이 독립의 감격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믿는 이들은 이것을 뛰어넘어야 하고 요즘 시대에는 에스더와 유관순 같이 나라를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는 애국자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배는 원로목사회 수석 부회장 김화익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태근 기자〉

"2010년에는 꼭 이루자" 이민개혁 촉구 걷기대회

18마일 걸으며 이민개혁 긴급성 알려

다민족 다세대로 이루어진 학생, 부모, 어린이, 연장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로스앤젤레스시 중심지역 18마일을 걸으며 이민개혁의 긴급성을 알렸다.

민족학교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 등 이민개혁을 촉구하는 단체들은 서울국제공원에서 출정식을 가진 후 다운타운과 로스앤젤레스 동부 살라자르 공원을 돌아서 한인타운 윌셔와 웨스턴가에서 마무리 집회를 가지는 대장정을 펼쳤다.

이날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은 "이민개혁이 성사되어 1천 2백만여 명의 서류미비자가 합법적 신분을 얻고 이민국 단속의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면 이는 소비를 촉진하고 정부 세수를 늘려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며 이민개혁이 경기부양에 있어서 빠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민개혁은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뤄야 할 긴급한 사안"이라고 미국 대중과 의회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대응을 촉구했다.

오전 중 다운타운 연방 이민국 건물 앞에서 멈춰 서서 진행된 커뮤니티 증언 행사에서 현 이민제도의 병폐로 인해 생이별한 자신의 가족에 대해 발언한 이상순 할머니는 "이민개혁을 9년간 기다려 온 이제 제 나이도 70세가 됐다"며 "하루라도 빨리 아들 가족과 재회해서 손녀 손자와 함께 살고 싶다. 2010년도에는 꼭 이민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이민개혁의 긴급성을 대변했다. 이날의 걷기대회는 플로리다 주 4명의 라티노 학생이 4개월에 걸쳐 마이애미부터 워싱턴 DC까지 1,500마일의 거리를 도보로 걸으며 이민개혁의 필요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시작한 것에 감동을 받아 촉발됐다.

로스앤젤레스 지역 연대 걷기대회를 주최한 민족학교,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DREAM Team Los Angeles, 그리고 라티노 이민자권익 단체인 CHIRLA 등의 활동가 및 회원들은 플로리다 주의 학생들이 매일 걷는 18마일을 로스앤젤레스에서 하루 동안 걸음으로서 연대와 지지 의사를 표시 했다.

동부 로스앤젤레스 대학 대학생으로써 로스앤젤레스 꿈의팀에서 활동하는 에릭 우에르타 학생은 "우리의 이민자권익 활동은 미국의 현대사 전반에 걸쳐 펼쳐진 흑인, 치카노 및 아시안계 민권 운동의 계보를 이어나간다. 민권 운동이 유색인종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요구했듯이 이민자들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하나의 인간으로서 대우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이라며 이민개혁의 의미를 재조명 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걷기대회에는 특히 대학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로스앤젤레스 꿈의팀, 한인 대학생 모임인 아카시아, UCLA IDEAS, ¡Adelante!, UC 학생회들의 회원들이 참가하여 이민개혁과 드림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음악에 맞추어 나머지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지재일 기자〉



이민개혁을 촉구하는 단체들이 걷기대회를 하고 있다.

"센서스 인구조사는 미주 한인들의 목소리!"


지난달 2일 센서스 참여를 당부하는 교계 지도자들이 가진 기자회견. ⓒ 기독일보 DB

〈3월 15일〉부터 센서스 설문지 발송 시작돼

"미주 한인들의 목소리가 힘있게 반영되려면, 센서스 꼭~참여해야 합니다."

4월 1일 인구 통계조사의 날을 앞두고 센서스국은 최근 철저하게 신분이 보장된다는 광고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며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월 8일부터는 미국 거주자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언어로 설문지를 받을 수 있는 안내 엽서가 먼저 발송된다.

한국어 센서스 설문지를 받고 싶다면, 엽서에 기재된 전화번호(1-866-955-2010)로 꼭 신청해야만 한국어 설문지가 가정으로 발송된다. 3월 15일에는 센서스 설문지가 각 가정으로 발송돼 약 10분이 소요되는 설문지를 작성한 후 센서스국으로 반송하면 된다.

오는 3월 7일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와 남가주한인목사회 등 남가주 한인교계 단체들이 한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센서스 주일'로 지키게 된다. 이날 교회에서는 센서스 참여를 알리는 홍보 브로셔가 성도들에게 배부되며, 목회자들의 설교도 성경에 나타난 센서스에 대한 내용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연방센서스국 제니 주 공보관은 "미국 정부에서 의료, 교육, 도로 건설 등 각 커뮤니티가 발전되도록 인구 조사가 집계된 자료를 기반으로 4천억 불 이상의 기금이 지원되는데 미주 한인들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생아까지 모두 센서스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 제니 주 공보관은 "보통 센서스는 어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쉽다"며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해야 한다"고 알렸다.

주 공보관은 "2000년 센서스 조사 당시, LA 한인 타운에서의 참여율은 약40%에 그쳤다"며 "100명에게 필요한 정부 예산이 겨우 40명분의 재정이 책정돼 나머지 60명이 10년간 손해를 봐야 한다면 한인 커뮤니티의 크나큰 손해"라며 모든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센서스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센서스 참여 인구 1명이 늘어날 때마다 매년 1,4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10명이 센서스에 참여하지 않으면, 매년 14,000달러를 손해 보는 것이다. 한편 센서스 설문지는 3월 8일 안내 엽서가 발송되며 한국어 설문지를 원하면 1-866-955-2010로 전화하면 된다.

〈센서스 2010 주요 일정〉

3월 8일: 한국어 센서스 설문지 신청을 위한 엽서 발송

3월 15일: 센서스 설문지 발송

4월 1일: 인구조사의 날- 모든 인구조사 설문지 센서스 사무국으로 반송

4월: 설문지를 반송하지 않은 가정으로 대체 설문지 우송

5월~7월: 센서스 조사요원들이 인구조사 설문지를 반송하지 않은 가정 추가 방문

12월 31일: 센서스 사무국에서 총 인구 조사 결과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

〈지재일 기자〉

주택 차압/퇴거중단

융자조정(후불)

- 세컨홈 및 상업용 건물도 가능
- 2차 융자 금액 삭감 (18만불에서 16만불 탕감받았슴)
- 다른 곳에서 실패하신 분 환영
- Option Arm 가진 분들, 30년 고정으로 바꿔드립니다

- NOD, NOT 받으신 분 — 즉각 차압중단
- 융자 조정, 숏세일 실패해서 차압 당하게 된 분
- 차압(Foreclosure)이 이미 끝나고 Eviction(퇴거 명령) 기다리는 분 — 즉각 퇴거중단

NO...NO Short Sale : 저희는 숏세일을 절대 권유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집을 지켜드리는데만 목적을 두고 일합니다.

WP Lending Inc
3400 W. 6th st., #200, LA, CA 90020
(6가와 카탈리나, MBC 건물)
Paul Lee
213.248.9297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 2010년 3월 15일 (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요."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윌셔 + 웨스턴)

지방 교회 최초 비판했던 CRI "우리가 틀렸었다"

'지방 교회(Local Church)' 운동에 대해 가장 처음 비판을 제기해 이단 논쟁의 단초를 제공했던 미국의 크리스천 리서치 인스티튜트(이하 CRI)가, 무려 6년여에 걸친 재연구 끝에 "우리가 틀렸었다(We Were Wrong)"라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의 권위있는 기독교 연구단체인 CRI가 자신들의 연구 결과가 잘못됐었다고 전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년여 재연구 끝에 실수 인정… "믿는 이들의 정통단체" 평가

지방 교회 운동은 중국에서 가장 크고 역동적인 운동 중 하나이며, 196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 중국인 워치만 니에 의해 시작되고 위트니스 리에 의해 계승·발전된 것으로, 목사인 복수의 장로들, 성직자와 평신도 구분의 폐지, 주님의 상을 중심으로 한 예배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양태론(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각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양태로 나타난다는 이론)을 가르친다는 의혹을 CRI가 1970년대 중반 지적한 이래 미국에서 이단정죄를 받아왔다. 한국에서도 예장 통합측이 제76차 총회(1991)에서 경북노회가 제출한 "지방 교회(회복 교회)의 정체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동 교회의 신론, 기독론, 인간론, 교회론에 대하여 연구한 후, "위트니스 리 사상은 워치만 니 사상과 함께 한국교회의 많은 이단들을 낳게 하는(김기동, 권신찬, 이명범 등) 모태가 되는 명백한 이단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제77차 총회에 "추가 연구보고서"가 제출되어 채택됐다.

그러나 이 모든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CRI가 자신들의 과거 연구 내용을 뒤집고 반성하면서 미국에서 지방 교회 논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CRI는 최근 자신들이 발행하는 '크리스천 리서치 저널' 특집판에서 50여 페이지에 달하는 지면 전체를 할애해 지방 교회 이단논쟁에 있어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방 교회들은 신약 기독교의 정통적인 교회"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이 재연구에는 과거 지방 교회에 대해 "정도를 벗어난 그리스도인 단체"라고 지적했었던 연구원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과오를 시인했다.

CRI의 대표인 행크 해네그래프는 2003년 지방 교회측 대표들과 가진 만남에서 자신이 지방 교회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음을 깨달으면서 재평가를 결심하게 됐다. 그는 "그 만남에서 지방 교회들이 부인하는 것으로 알아왔던 바로 그 교리들을 그들이 인정하는 감동적인 말을 듣게 됐다"고 회고했다.

해네그래프는 "지방 교회 대표들은 영원히 구분되는 세 위격으로 계시되신 한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 사람은 본체론적으로 결코 하나님의 신격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 그들은 '단지 교회(only the church)'라고 말한 것을 '유일한 교회(the only church)'로 오해받아 반대받았던 사실을 하나하나 증언했다"고 했다. 이에 CRI는 지방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재평가 작업을 시작했다. 이는 미국 뿐 아니라 중국, 대만, 한국, 영국에서도 이뤄졌다. 이 연구에는 수백권의 책과 논문과 교회 문서와 음성자료와 영상물에 대한 주의 깊은 평가가 포함됐고, 법정 자료들까지도 참고했다. 그리고 해네그래프 대표는 "우리가 한 근본적인 연구의 결과는 '우리가 틀렸었다!'라는 말로 압축된다"고 했다.



지방 교회에 대한 과거 비판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을 담은 CRI의 저널 특집판

지방 교회 운동에 대한 CRI의 최초 연구와 이번 재연구에 참여한 엘리옷 밀러(크리스천 리서치 저널 편집장)는 "우리가 전에 그들을 '정도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 단체'라고 평가했던 것은 우리가 그들을 올바르게 평가한 것이 아니라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다"며 "비록 우리가 여기 서방에서 익숙하게 된 것들과는 다르지만, 이들(지방 교회)은 확실히 믿는 이들의 정통 단체"라고 강조했다.

밀러 편집장은 물론 지방 교회에 비판받을 만한 요소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가 지적한 것은 ▲지방 교회들이 인간 본성에 관해 삼분설을 취하고 그리스도인 의생활에 대해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보다는 더 신비스럽게 접근하는 것 ▲세대주의를 포함한 그들의 해석학적인 방법,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보다 예표론에 대해 더 사변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밀러 편집장은 "지방 교회들의 가르침의 이러한 방면 중 정통 교리를 손상시키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세계적 권위의 신학 명문 풀러신학교 역시 지방 교회에 대해 이단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대웅 기자〉


합헌 판결 직후 NCCK를 비롯한 시민사회 · 종교계 인사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형제 합헌 판결, 헌법상 기본권에 반하는 것"

NCCK(총무 권오성 목사)는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합헌 판결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인 생명권에 반하는 판결로, 또 하나의 국가 폭력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NCCK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난 20여년동안 사형제도가 반생명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반성서적인 제도임을 끊임없이 밝히고 이의 폐지를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왔는데 헌법재판소가 13년 전 법리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한 논리로 사형제 합헌판결을 내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NCCK는 "사형폐지 법률안이 국회 본회 통과되 대한민국이 법률적 사형폐지국으로 진일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노력을 다시 시작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대웅 기자〉

사설 말씀의 권위 땅에 떨어뜨리는 性經 주장

성경을 '색욕거리'로 전락시키는 이단서적 '하나되는 기쁨'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이 책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지난해 가을 출판사측이 더 이상 해당 책을 출판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일단락됐었으나, 그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저자 양승훈 교수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동시에 추천자인 정동섭 목사와 가정사역자들이 이를 두둔하고 더 나아가 재출간 및 재배포 의사를 밝히면서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먼저 한국장로회총연합회(대표회장 박정호 장로) 등 9개 단체들은 한국기독교이단문제연구소(이사장 심영식 장로)와 함께 3월 12일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에서 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각 교단 장로회들도 「하나되는 기쁨」의 심각성에 분개하며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앞서 '하나되는 기쁨'의 저자를 추적해 밝혀내고 이 책에 대한 경계를 촉구했던 '교회개혁네티즌연대(대표 박노원 목사)'는 최근 조직을 한국교회개혁연대(이하 교개연)로 확대 개편하고, 그 첫 중점 활동으로 '하나되는 기쁨'에 대한 대처를 내세웠다.

한국교회 평신도들과 중진 목회자들이 이 책의 해악성과 이단성에 정면으로 맞서고 나선 것이다. 이들이 이토록 결연한 의지로 나선 것은 이 책이 단순히 음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점은 아가서의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성행위에 대한 묘사로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과 관계된 이들의 이후 행태는 신앙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처음에는 출판사측에서 책을 회수, 폐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하더니, 최근에는 가정사역협회 주최 기자회견에서 저자와 추천자, 가정사역자들까지 몰려나와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저자인 양승훈 교수조차 일부지만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동섭 목사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봤지만 회개할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면서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더 나아가 적반하장으로 이 책에 대한 문제제기의 배후에 이단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비판을 제기했던 이들까지 전부 다 이단 혹은 이단 동조자로 매도했다. 흥미로운 것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이단감별사로 불리는 이들은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상시에는 설교나 글에 조금만 문제의 소지가 있어도 꼬투리를 잡아 이단으로 매도하는 것을 일삼아왔던 이들이지만, 자신들과 친분이 있는 이가 이단 의혹에 휘말리자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평소 이들의 이단 정죄가 얼마나 자의적이고 비객관적으로 이뤄져왔는지를 짐작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교회는 차제에 이같은 심각한 이단서적과 그에 동조하는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엄중히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괴이한 이단 사상으로 혼란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패밀리 컴맹탈출!

가장 쉽게 배우는 컴퓨터!

망설이면 늦습니다.

총CD 10개로 구성

컴맹탈출의 네비게이션만 믿으세요!

시판가격 $220 → 할인가격 $150

※ CD 한 프로그램만 이수하셔도 6개월분의 학원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컴퓨터를 배우시는 분은 많은데 많이들 힘들어 합니다. 나이들었다고 엊그제 가르쳐줬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무시당하는 기분… 젊은 사람은 그런것도 모르니 한심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도 컴맹탈출이 안되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까지 시중에 있는 모든 자료들이 가르치는 사람의 눈높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배우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왕초보의 시각으로 만든 컴맹탈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빨리 갈 수도 늦게 갈수도 있어서 아주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잘해서 컴맹탈출이 아니라 프로그램 방법대로 따라하면 저절로 컴맹탈출!! 자동차 운전을 처음하실때는 누구든지 긴장하다가 어느정도 익숙해지면 재미있듯이, 컴맹일 때는 컴퓨터가 무섭지요. 어디를 갈 때 네비게이션이 가르쳐준 대로 가기만 하면 목적지가 나오듯이 내가 다 기억하고 잘 할려고 하면 나만 힘이 듭니다. 그냥 맡겨주고 따라가면 됩니다.

- 마우스 사용법에서 홈페이지 제작까지 완전 마스터
- CD롬에 넣기만 하면 자동 실행되어 따라가기만 하면 "저절로 컴맹이 탈출됩니다."
- 이 프로그램은 가르치는 사람의 눈 높이가 아닌 배우는 사람의 눈높이로 만들어졌습니다.
- 인터넷 왕초보에서부터 인터넷 박사 과정까지 반드시 배우고 마스터 해야하는 중요한 프로그램 10가지를 엄선한 것입니다.
- 학원갈 필요도, 교재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 당신의 'IT 내공' 을 체크해 보세요

IT내공 측정 20개 문항을 체크해 보세요.
'그렇다'고 답한 문항이 0~2개이면 하수, 3~12개면 중수,
13~16개이면 고수, 17개이상이면 달인으로 분류됩니다.

1. PC를 통한 정보검색과 간단한 문서작업이 가능하다.
2. 이메일을 받고 쓸 수 있다.
3. 온라인 쇼핑몰이나 주식거래를 자주 활용한다.
4. 블로그, 사이월드, 카페 등에 사진이나 글을 올리곤 한다.
5. 사진이나 동영상을 편집 할 수 있다.
6. 이메일을 통해 RSS피드를 받아 보고 있다.
7. 트위터,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등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를 이용중이다.
8. 휴대전화로 웹검색을 할 수 있다.
9. 휴대기기(스마트폰 등)로 이메일을 확인한다.
10. 스마트폰과 일반 휴대전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다.
11.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를 휴대기기에서 사용한다.
12.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깔아 본 적이 있다.
13. 휴대전화로 지도, 목적지까지의 경로, 대중교통 정보 등을 검색 할 수 있다.
14. 스카이프, 구글 보이스 등의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15. 와이파이, 3G, 와이브로의 차이를 구분 할 수 있다.
16. 웹스케줄러나 동기화 프로그램으로 일정을 관리한다.
17. 스마트폰을 해킹하거나 OS교체를 시도해 본 적이 있다.
18. 구글닥스나 웨이브 등의 웹협업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
19. 2~3종 이상의 스마트폰과 e북 등 휴대기기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20. 휴대전화에 추가돼야 할 기능과 서비스들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한다.

구입처 1-800-310-1089 자세한 정보는 www.mystanton.com

"3.1정신으로 남북통일 위해 눈물 흘릴 때"

한기총 제91주년 3.1절 기념예배



한기총 3.1절 제91주년 기념예배

경술국치(庚戌國恥) 1백년과 삼일만세운동 제91주년을 맞아 기념예배가 열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광선 목사)는 2월 28일(주일) 오후 3시 연동교회(이성희 목사 시무)에서 〈제91주년 3.1절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갖고 일본정부의 종군위안부문제 사과와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 및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을 내용으로 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윤종관 목사(공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하태초 장로(공동회장)의 기도와 홍기숙 장로(여성위원장)의 성경봉독으로 이광선 목사가 '느헤미야의 애국애족'(느 1:9-11)을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광선 목사는 "91년 전 대한독립만세운동을 이끈 것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고 전제하고 "눈물과 땀 그리고 목숨을 바친 기독교인들과 애국선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여기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그때의 신앙적 애국심과 정신을 계승하여 남북한 백성들이 통일을 위해 함께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라 설교했다.

강진문 목사(공동회장)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한창영 목사(부회장)가 '국민통합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김명희 목사(사회위 부위원장)가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하여' 각각 특별기도를 인도한 후, 참석자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당한 경찰 및 전·의경들을 위해 헌금했다. 이어 김운태 목사(총무)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애국가를 제창한 후 지덕 목사(명예회장)가 축도했다.

〈류재광 기자〉

"'약속' 개념이 루터 신학을 파악하는 열쇠"

한국개혁신학회서 최주훈 교수 발표



한국개혁신학회는 27일 오후 서울 방배 백석대학교에서 제83차 정기논문발표회를 가졌다. ⓒ 김진영 기자

"루터에게 있어 '약속' 개념은 곧장 '구원의 확신'과 연결되었고, 이러한 약속을 기초로 한 구원의 확신은 당시 교황체제의 로마-가톨릭 신학에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다시 말해 루터 종교개혁신학의 전환점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학적 대발견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은 바른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하나님의 의가 되며, 이 의가 곧 복음이 된다."

그간 '칭의론'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을 '약속'이라는 개념에서 새롭게 접근한 논문이 발표됐다. 루터대학교 조직신학 최주훈 교수는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방배동 백석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개혁신학회(회장 권호덕 교수) 제83차 정기논문발표회에서 '무엇이 루터적인가?-종교개혁신학의 전환점 Promissio(약속)'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최 교수는 '과연 무엇이 루터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16세기 이래로 교회역사에 '개신교'라는 이름이 등장했다. 많은 교회와 신학자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정작 이 말이 의미하는 원래의 의미와 어원을 찾기 위한 학술적 고민은 그리 풍성하지 않았다"며 "개신교라는 말을 할 때 분명한 대립각은 구교에 해당한다. 구교와 개신교의 차이는 일견 조직과 직제 구성의 차이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조직과 직제를 낳은 것은 교회의 신앙고백이다. 즉 조직과 직제 구성의 차이는 단지 지엽적인 것일 뿐이며, 그것이 개혁적인 것의 뿌리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약속'의 개념이 루터의 종교개혁신학을 파악하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에 의하면 루터의 개혁적 입장이 가장 뚜렷하게 표현된 저작은 1520년에 완성된 '교회의 바벨론 포로'이다. 이 글은 수십 년 동안 로마 교회 안에서조차 성례전과 교회에 대한 신학적 담론을 풍성하게 만들었고, 결국 후에 로마교회가 개신교회를 정죄하고 갈라서게 되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다.

최 교수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무한한 신뢰는 성례전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기반이라는 것에 대해 당시 개혁자들은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종교개혁적 신학의 근간이며, 루터의 신학이 '개혁적' 정체성을 갖게 되는 기본 바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알려진 종교개혁신학의 핵심을 '칭의론'에서 '약속'으로 옮겨 루터의 신학을 설명했다.

최 교수는 '약속'의 개념이 언제 루터에게서 처음으로 등장하는가의 문제에 집중한다. 그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문서는 1518년 초, 루터에 의해 저술된 '진리와 두려움에 떠는 양심의 위로에 관하여'이며, 이 글은 1517년 10월 31일 '95개조 논제'이후 발견할 수 있는 최초의 종교개혁 신학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최 교수는 이 문서에 타나난 루터의 사상이 1518년 아욱스부르크 청문회에서 카예탄 추기경과 논쟁을 벌인 사상적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그는 "루터 종교개혁신학의 전환점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학적 대발견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약속에 대한 이 확신은 곧 바른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하나님의 의가 되며, 이 의가 곧 복음이 된다"며 "이러한 루터의 견해와 주장을 카예탄은 곧바로 '잘못된' 교리이며 '이단적' 사상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같은 신학적 대립은 결국 개신교와 구교의 신학적 차이를 뚜렷하게 드러내주며, 가장 '루터적'인 것을 보여주는 증빙자료가 된다"고 역설했다.

그렇다면 칭의론과 약속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최 교수는 그간 당연하게 인식되었던 칭의론을 진부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이것이 약속과 신앙의 맥락에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설명했다. 최 교수는 "약속의 성례전 이해는 칭의론의 핵심사상과 맥을 같이 하며 하나님의 의는 약속과 신앙의 관계로 규정할 수 있다"며 "루터의 칭의론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말씀과 성례전에 관한 바른 이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제19회 극동포럼이 4일 아침 7시 서울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 김진영 기자

극동포럼, 스티븐슨 대사 초청 '**한미관계**' 특강

주한 美 대사 "한국 민주화에 교회 역할 컸다"

제19회 극동포럼(이사장 정의순)이 4일 아침 7시 서울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미관계'를 주제로 열렸다. 캐슬린 스티븐슨 주한미국대사가 강사로 나섰다.

이날 스티븐슨 대사는 올해가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임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전쟁 이후 60년이 흘렀지만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그 보다 더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비록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한미협력이라는 희망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김장환 목사를 가리키며 "만약 김 목사님께서 과거 미국에 가지 않으셨다면 한국과 미국의 파트너십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도 한 스티븐슨 대사는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이 함께 안보를 감당하며 더욱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자"고 전했다.

이어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받았던 깊은 인상을 전한 스티븐슨 대사는 "지난 1975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비록 한국은 이제 막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때였지만 희망과 변화의 기운이 넘쳤다"며 "사람들의 삶을 비롯한 모든 것이 바뀌어 가고 있었다. 그 때 이 나리에는 굉장히 특별한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1980년대 한국의 민주주의 투쟁 가운데 교회의 역할이 컸음을 언급했다. 그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만들어 나갔다"며 "민주주의를 이뤄감에 있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전했다.

한편, 포럼에는 극동포럼 상임고문인 김장환 목사 등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진영 기자〉




총력 전도 장면 ⓒICM

구원의 소식을 다민족에게도

2010, 봄 ICM 총력전도 개최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2세들에게 불어 넣어 미국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과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62억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자 각국의 디아스포라 젊은이들을 깨우고 있는 국제도시선교회(이하 ICM / 대표 김호성 목사)는 16회째 총력 전도를 오는 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최한다. 국제도시선교회는 4년 전부터 매해 3월, 6월, 9월, 12월의 첫 주 토요일에 총력 전도를 개최하고 있다.

ICM 총력전도 운동은 예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명하신 말씀에 2세 젊은이들이 순종케하여 맨해튼 거리로 나가 다른 민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운동으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미국 안에 심으신 중요한 이유를 깨닫을 수 있도록 도전한다. 또한 2세들을 미국에 심으신 하나님의 뜻과 정체성을 발견해 모든 계층을 복음화 하는 리더로서의 비전을 품어 한민족이 제2의 청교도로 미국을 새롭게 하는데 기여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날 수많은 젊은이들은 모든 열정과 영혼 구령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모아 길로 나가 온 종일 마음을 다해 복음을 전한다.

한편 ICM은 오는 7월 초 두 주간 동안 작년에 이어 모슬렘화 되고 있는 유럽 미션을 통해 한인 디아스포라의 젊은이들이 길로 복음을 들려주는 훈련해 심겨진 디아스포라 선교 자원 개발에 열심을 내고 있다. 개발에 열심을 내고 있다.

〈오상아 기자〉

최일도 '은퇴' 목사, 사회봉사와 영성수련에 집중할 것

1일 유빌라떼서 기자회견, 영성수련센터에 대한 기대 드러내

애틀랜타 한인들을 위한 '최일도 목사의 특별 영성강좌'가 4일 오후 8시부터 유빌라떼에서 진행된다. 이번 영성강좌와 관련해 최일도 목사는 1일 오전 11시 유빌라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를 갖고 있지 않거나 기성종교에서 상처받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면 이를 내려놓고 영혼의 평화를 찾고, 자신과의 화해, 이웃과의 화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최 목사는 한국 다일교회를 조기은퇴하고 집중적으로 펼쳐나갈 영성수련, 사회봉사 사역을 앞둔 마음가짐과 아름답게 마무리한 '조기 은퇴' '장학재단 설립' '2대 담임목사 청빙과정'등에 대해 알렸다.

최 목사는 한국에서는 갑작스럽게 은퇴를 선언해 뒤늦게 그 취지와 과정이 알려진 것에 대해 사회와 교계에 좋은 본이 되는 일을 미주에서는 알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스탭들의 의견에 따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목사는 "본인의 조기은퇴보다 다일교회 당회가 2대 담임목사를 청빙하면서 일괄 사직서를 제출해 '목회의 걸림돌이 된다면 언제든지 사표를 수리하셔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했다. 이것이 교회갱신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는 사회 봉사활동과 마음 수련, 마음 치유 사역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답하고 있는 최일도 목사

문화관광부에서는 극심한 사회병리현상을 개선하는데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불교가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하면서, 최일도 목사의 조기은퇴 소식을 듣고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마음 수련과 치유하는 일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목사는 "그간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 많은 이단, 사이비 단체가 영성훈련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온 경향이 있다.

이제는 개교회의 담임목사직을 벗어났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일공동체 미주본부를 애틀랜타로 정하고 지난해 100 에이커의 대지를 구입한 목적도 영성수련을 위해서라면서, 이곳이 국제적인 영성수련센터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최일도 목사는 오는 3월 14-18일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 21-25일 '2단계 작은예수살아가기'를 인도한다.

〈박현희 기자〉


원로 목회자들이 은목교회 설립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은퇴 목회자들 위한 교회 세워진다

초교파적으로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워싱턴지역에도 은퇴 목회자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질 전망이다. 은목교회(가칭)의 취지에 동감하는 원로목회자들이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영생장로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설립준비위원장에 박상철 목사, 서기에 문경원 목사를 선출하고 창립준비를 시작했다.

은퇴 목회자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자는 안건은 이미 7년 전 원로목사회에서 언급된 적이 있으며 당시 원로목사회에서는 총무인 박상철 목사에게 일임해 안건을 추진했다. 이에 박상철 목사는 수소문끝에 미국교회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하지만 원로목사회에서는 주일예배와 수요예배 등 특정한 시간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은목교회 추진을 중단했다.

어렵게 구한 장소였기에 박상철 목사는 몇몇 은퇴목회자들과 함께 '예수사랑교회'를 개척했다. 이른바 은목교회가 세워진 것이지만 이후 동교회가 KAPC에 가입되면서 교단적인 한계가 생겼고, 지난해 박상철 목사가 은퇴하면서는 아예 새로운 교회로 탈바꿈하게 됐다.

그러던 중 박상철 목사는 영생장로교회(담임 정명섭 목사)에서 교회공간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은목교회를 새롭게 구상하게 됐다.

정명섭 목사는 "최근 교회를 신축한 후 은퇴 목회자분들이 여러분 다녀가셨다"며 "그 때마다 그분들의 고충을 많이 듣게 됐다"고 전했다.

대부분 목회를 은퇴한 후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전에 시무했던 교회에 매주 출석하면 새로 부임한 후임자에게 혹시나 부담이 될까봐 특별한 절기에만 출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교회 규모가 크면 1부 예배만 드리고 나오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초기엔 다른 한인교회들을 방문하다가 이것도 한계에 부딪히면 결국 규모가 큰 미국교회에 출석하게 된다.

이런 고충을 들은 정명섭 목사는 "은퇴가 꼭 나이가 차서 오는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인데 그동안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의 사정을 들으니 남의 일 같지가 않았다"며 "방법을 찾다가 교회 공간을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영생장로교회에서는 주일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원로 목회자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랫동안 은목교회를 구상해 온 박상철 목사는 은목교회에 대한 리서치를 많이 했다. 이미 한국에서는 교단별로 지역별로 은목교회가 세워져 있었으며, 미주에도 시카고와 엘에이 지역에 이미 은목교회가 설립되어 있었다.

26일 준비모임에서 박상철 목사는 이런 케이스들을 소개하고 초교파적인 은목교회를 세워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모임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일단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른 지역의 은목교회와 연락해 정관 및 노하우 등을 받기로 했다. 3월 한 달 동안은 함께 기도하면서 은목교회의 취지와 방향을 더 알려 창립멤버들을 모으고 4월이나 5월 중에 창립예배를 드릴 계획이다.

이날 모임에는 박상철 목사, 문경원 목사, 주성봉 목사(이상 KAPC), 김택용 목사(PCA), 박문규 목사, 김헌수 목사(이상 침례교) 등이 설립준비위원으로 참석했다.

참여 문의 : 703-323-1063(설립준비위원장 박상철 목사)

〈조요한 기자〉

총신디지털 ●●● Chongsin Digital Lifelong Education ●●●


원장 정서영 목사

본원은 최고의 교수진과 동영상 강의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있으면 수업이 가능하며, 수료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집과정

과정	학과	이수과정	지 원 자 격
신학부	신학과 기독선교학과 기독상담학과	(4학년) 8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교) 및 신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한 자
신대원	신학과	(2학년) 4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 국내 외 신학대학(교)에서 8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각 교단 신학교 졸업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수료한 해당학년 학생 및 졸업자
신대원 전문	신학과 기독선교학과 기독상담학과	(3학년) 6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국내 외 일반대학교(4년제)나 대학원 이상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편입학 – 학사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자 또는 타신학교에서 신대원과정 재학중인 자

● 특 전
방학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함
연령, 성별에 상관없음
여목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학비가 저렴함
신대원과정 수료자는 목사고시의 필기고사를 면제함

● 구비서류
입학원서 (www.cds.re.kr 에서 접수 가능),
주민등록등본, 사진, 졸업증명서(편입자)

평생교육법 33조, 동법시행령 48, 49조 규정에 의한 원격교육기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총회가 인준한 사이버 신학 교육기관

www.cds.re.kr 대표전화 82-2-3472-3181

■ 류기종 박사, CSKC 월례포럼에서 발제

세계 속의 한국신학이 나아갈 길은?

한국인으로서 신학함의 의미는 무엇일까? 한국 토착화 신학에 대한 보수신학계의 거센 반발이나 서구 일변도의 신학적 흐름 대한 강한 저항 외에 또 다른 제3의 길이 가능할까? 한국기독교연구소의 제18차 월례포럼에 발제자로 선 류기종 박사는 "한국신학 소고"라는 강의에서 한국신학이 나아가야 할 길에 관해 "대화"를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류 박사는 현재 평화영성신학연구원 원장이며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이다. 그는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석사를 마친 후 미국 드루신학교에서 종교철학 및 조직신학으로 Ph.D. 학위를 취득했다. 목원대, 협성대 등 감리교 계통 신학교에서 교수를 맡아 조직신학, 영성신학, 동양사상 등에 관해 강의한 바 있다. 류 박사는 자신이 수십년간 연구해 온 기독교 신비주의, 영성신학, 한 사상, 과정신학, 대화신학 등을 총망라해 18일 포럼에 나왔다.

류 박사는 "한국 신학자에 의해 해석된 기독교 복음을 한국신학이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한국인뿐 아니라 전 인류, 세계인을 위한 보편적 신학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그는 한류(韓流)가 전세계에 확산됐듯, 한국적 상황에서 출발하는 한신학(韓神學)도 전세계에 보편적으로 호소력있는 신학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사람 대부분이 미국에서 서구신학을 배우고 있는 한인 유학생이란 점을 의식해서인지 류 박사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듯, 우리도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음의 궁극적 목적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라

한국신학의 미래와 가능성에 관해 류기종 박사가 열강하고 있다.

는 국가와 종교, 문화의 경계가 허물어 지는 지구촌 시대를 살고 있는데 기독교 역시 서구 중심의 신학으로는 큰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독교는 전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종교인데 복음이 로마로 전파되고 서구 중심적이 되면서 배타적, 독선적 성향의 종교가 됐고 오히려 인류 평화에 역기능을 한 사례가 자주 발견된다"고 말했다. 류 박사는 산상수훈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고 밝혔다.

그는 한국신학의 미래를 위해 첫째로 대화신학의 도입을 꼽았다. 대화신학은 기독교와 타종교의 적극적 대화를 추구하는 신학이다. 류 박사는 "인류 평화를 위한 최상의 길은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기독교 신학의 방향은 개종이 아닌 대화가 되어야 하며 이 원리를 받아들일 때 기독교는 새롭게 변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신학자들이 윤성범, 유동식 박사처럼 유교, 불교 등 타종교와의 관계성을 탐구하며 한국적 문화 속에서 타종교와 기독교의 대화를 추구할 때, 그 한국신학은 세계 신학계에 대화신학의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류 박사는 화이트 헤드의 과정철학에서 나온 과정신학을 한국신학에 도입해 서구철학과 동양철학을 통합하며 우주적 시대의 인류에게 어필할 수 있는 복음의 해석 방법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 한민족 고유의 사상인 한을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기독교 신비주의의 재발견을 한국신학의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합일을 이루는 기독교 신비주의는 기독교의 원류라 할 수 있는 유대교에서도 '카발라'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불교 등 타종교가 가진 신인합일사상과도 일맥상통할 수 있는 주제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서구적 복음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했지만 이제 그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류 박사는 "한국신학이 이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강의를 마쳤다.

〈김준형 기자〉

교계, 사순절 맞아 회개와 회복 위해 기도

교협, 교역자회, 원로목사회 공동기도문 발표

시카고 지역을 대표하는 교계 지도자들이 사순절을 맞이해 지난 24일 아가페장로교회에서 사순절 공동기도문을 발표했다. 이 기도문은 시카고지역한인교회협의회, 시카고교역자회, 시카고원로목사회 명의로 발표됐으며 회개와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도문은 참석한 모든 회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드리는 것으로 시작돼 곧 회개로 이어진다. 회개에서는 "교회가 부활의 힘과 생명력을 상실했다"고 고백한다. 그로 인해 "교회가 하나돼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세상으로부터도 지탄을 받게 됐다"고 하는 한편 "교회조차 물량주의에 빠져 세상의 우상과 풍조를 따르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었다"고 회개했다.

기도문에서는 최근 시카고 교계에 일고 있는 교회 갈등을 의식한 듯 "우리의 언행심사가 옳지 못한 적이 너무도 많았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자신을 내세우고 예배했다, 교회 안에서 치졸한 힘 겨루기를 하고 서로의 인격을 살해하는 거친 모습이 난무했다, 구체적인 아픔 가운데 놓인 교회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구절들이 눈에 띄었다.

기도문은 "하나님의 치유의 영으로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참회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자신을 내려 놓는 십자가의 길을 회복케 해 다시금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달라고 마친다. 이 기도문은 강인덕 목사, 곽호경 목사, 백성진 목사, 최문선 목사, 신광해 목사가 주제 문단별로 낭독했다.

한편, 기도문 발표에 앞서 통성기도회에서는 주님의 고난과 성결의 삶, 주님의 부활과 능력의 삶, 아이티 재난 구제와 복음화, 각 교회의 성령 충만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했다.

아래는 교협-교역자회-원로목사회 사순절 기도문 전문.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 땅에 와서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팔로 안위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 거룩한 장막된 교회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쉼을 주시고, 크고 작은 순례의 상황 가운데 만나주시며, 본향을 향한 우리의 마음, 발걸음에 새 힘과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회하는 자들에게 용서의 은총을 약속하신 하나님, 사순절을 맞아 참회의 절기기를 시작하는 우리를 또 한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이하 생략)

〈김준형 기자〉

시카고 유일 한인 루터교회에 경사 "새성전 입당"

굿쉐퍼드교회 24/7/365 예배하는 성전되길

시카고 지역의 유일한 한인 루터교회인 굿쉐퍼드교회가 지난 28일 오후 4시 새성전에 입당했다. 미국에서는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주류교단인 미복음주의루터교회(ELCA) 소속이지만 시카고 한인 교계 입장에서는 유일한 루터교회이기에 이번 입당은 개교회를 넘어 교계에서도 적지 않은 경사다. 미주에서도 한인 루터교회는 열손가락에 꼽히며 그중 비교적 큰 규모의 독자적인 예배공간과 부대시설을 갖춘 교회는 굿쉐퍼드교회가 처음이다. 이 교회는 미네소타루터신학교를 졸업한 김재범 목사에게 ELCA 본부가 개척을 요청하며 2002년 창립됐다. 네이퍼빌에서 3천명 성도를 자랑하는 백인교회인 굿쉐퍼드교회와 파트너십을 맺은 한인 굿쉐퍼드교회로 창립됐지만 재정, 행정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별도다. 그러면서도 이 두 교회는 어린이, 청소년 목회, 선교, 목회 멘토링 등에서는 리소스를 공유하고 있는, 독립적이면서도 협력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 이 교회를 개척한 김 목사는 한국 최대의 통신회사와 유명 항공사에서 소위 '잘 나가던' 직장인이었지만 30대에 회심하고 40대에 평신도 신분으로 홍콩루터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미네소타까지 유학 오게 됐다.

지난 7년간 굿쉐퍼드교회는 백인 굿쉐퍼드교회를 빌려 썼지만 이번에 별도의 성전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물론 앞으로도 백인 굿쉐퍼드교회와 다양한 면에서 협력하며 공동사역하는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지만 한인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생겼다는 점에서 교회 사역에 활력이 붙게 됐다. 김재범 목사는 "입당에 맞춰 교회가 세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교회'라는 비전에 맞게 24시간, 주7일, 365일동안 예배와 찬양, 기도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굿쉐퍼드교회는 입당 바로 다음날인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내 생애 마지막 한달"이라는 주제로 아침 5시 30분과 6시 30분에 새벽기도회를 드리고 있다.


굿쉐퍼드교회가 새성전에 입당하며 온 성도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김준형 기자〉





3.1운동 정신으로 민족 화합 이루자

제 91주년 3.1절 기념식 워싱턴주 양대 한인회 공동개최로 열려

제 91주년 3.1절 기념식이 지난 1일 저녁 KO-AM TV 공개홀에서 개최됐다. 워싱턴 주의 양대 한인회인 시애틀 한인회(회장 이광술)와 타코마 한인회(회장 장석태)가 공동으로 주최한 기념식에는 200여 명이 넘는 한인들이 참여해 독립을 향한 선현들의 정신을 기리고 민족화합을 염원했다.

3.1절 기념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훼드럴웨이 교회 연합회장인 원호 목사가 기도를 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장인 주완식 목사의 독립선언문 낭독에 이어 시애틀 이하룡 총영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를 대독했으며, 이광술 회장과 장석태 회장의 기념사 후에 신호범 상원의원이 축사했다.


선창에 이은 참석자들의 만세삼창 ⓒ김브라이언

이명박 대통령은 3.1 운동의 화합정신을 계승, 승화하자며 국민통합을 역설하고, 남북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남한을 단지 경제협력의 대상으로만 여겨서는 안 되며,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위해 민족자존 의식을 가지고 남북 간의 여러 현안을 진지한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선전한 우리 젊은이들처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세계를 품으며 인류 공영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자고 전했다.

원호 목사는 순국선열들의 독립의지를 기억하며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에서 한민족의 위상을 떨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이광술 시애틀 한인회장은 회관 문제는 전직 한인회장들과 사회 단체장들의 협력으로 50%이상 해결이 됐다며 3.1절을 맞아 한인사회가 더욱 연합과 상생을 도모해 2세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을 보이자고 강조했다.

장석태 타코마 한인회장 역시 3.1절 정신을 기억하며 한인사회를 화합하고 서로 나누며 돕는 사회로 만들자로 말했다.

신호범 의원은 3.1절은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본 선진들의 의지였다며 세계 곳곳에 뿌리내린 우리 민족이 크게 일어나 세계를 이끄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3.1절 노래를 합창하고 임광희 시애틀 한인회 이사장, 이정옥 타코마 한인회 이사장의 선창에 맞춰 만세 삼창을 부르고 기념식을 마쳤다.

〈김브라이언 기자〉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 워싱턴주에서 개최

오는 4월 12일 부터 타코마 중앙장로교회에서


황선규 목사는 워싱턴 주가 영적으로 크게 부흥하도록 연합하여 기도하길 요청했다ⓒ기독일보 DB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어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제 3회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가 오는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타코마 중앙장로교회(담임 이형석 목사)에서 열린다.

제 3회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IPCAN: International Prayer Conference for All Nations)는 "효과적인 지역교회 선교참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기홍 목사(남가주 은혜한인교회), 김종필 목사(엘리야 학교), 호성기 목사(필라 안디옥교회)를 주강사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개 교회 기도운동, △효과적인 개 교회 선교 참여, △영성과 개 교회 선교 등에 관해 강의하게 된다. 또한 유지화 선교사, 나성균 목사, 송상철 목사, 김정한 선교사 등 20여명의 선교사가 선교보고와 함께 선교의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된다.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는 1회와 2회 열방을 품는 기도 성회가 각각 남가주 은혜한인교회, 토론토 큰빛교회에서 열렸을 만큼 대형교회가 중심에서 성회를 이끌었던 행사다. 하지만 이번 워싱턴주에서 열리는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는 중소교회가 연합해 이뤄지는 모임으로 교파와 지역을 넘어 한 마음으로 선교를 향해 연합되는 행사다.

불과 1년여 전 세 개의 작은 교회가 교회 연합과 부흥, 회개를 외치며 일어났던 워싱턴주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대표 황선규 목사)가 40개 교회와 선교단체의 연합으로 확대되며 계속해서 기도운동을 펼쳤고 그에 따른 결과로 워싱턴주에서 대형기도 성회까지 개최하게 됐다.

동성애와 무신론이 난무하고 기독교 복음화가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는 워싱턴주에서 개최되는 기도 성회가 지역 선교의 불을 붙이길 기대하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황선규 목사(GSM 선한목자선교회)는 "작년 10월, 3개의 교회가 모여 시작한 연합기도회가 지금은 38개의 교회와 선교단체가 모이게 되었다.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계획으로 이뤄진 일"이라며" 앞으로 50개, 100개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날도 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부흥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성령의 불길이 크게 타올라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워싱턴주가 영적으로 크게 부흥하도록 교단 교파를 떠나 연합하여 열방을 끌어안는 기도성회를 열자"고 참여를 독려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이기범 칼럼



이 기 범 목사
스포켄한인장로교회

사순절에 드리는 기도

지금 올림픽에서 금메달은 따는 선수들은 이미 오랜 전부터 이 꿈을 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꿈의 실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절제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계획을 알려주신 다음에, 인간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은 주어진 자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도 있고, 믿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사시는 동안,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앞둔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눅 22:44)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생각해도 다 깨달을 수 없는 것,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며 사는 이유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누차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기어코 안 해도 될 걱정까지 끌어와서 걱정합니다. 이민사회의 삶이 외롭다고 말하지만, 사실 외로움도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발생하는 정서적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에벤에셀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며(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분입니다(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일까요? 원자탄 제조를 감독했던 과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의회에 출두하여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입니다." 젊은 의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평화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박사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라고(고후5:18).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사 48:22). 모든 싸움과 다툼은 욕심(정욕)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약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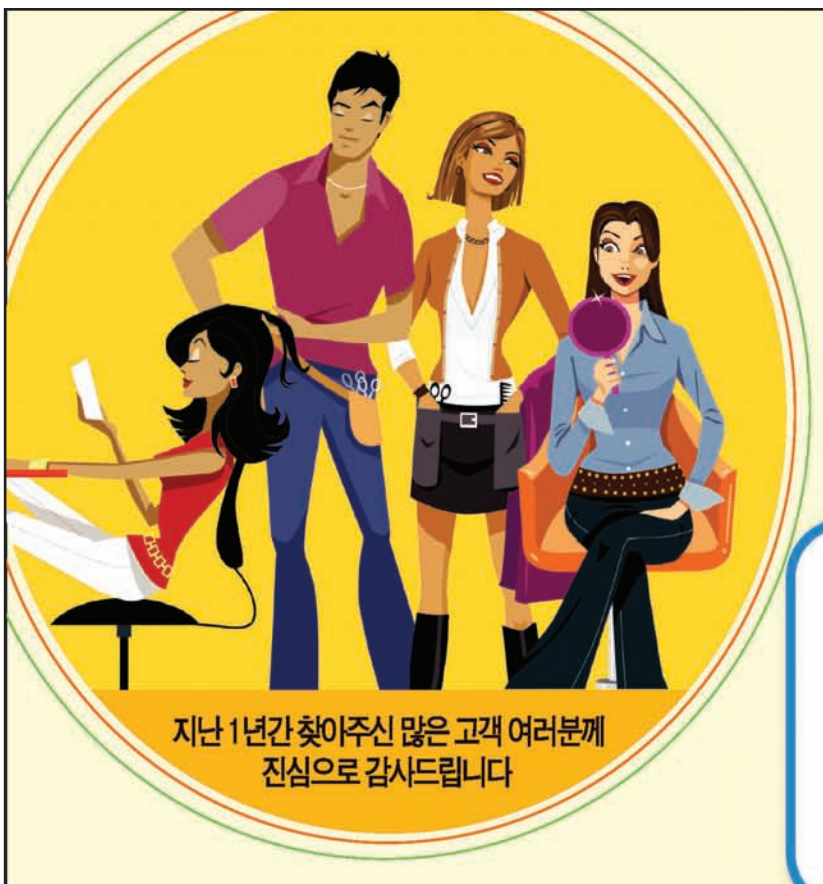
따라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5:9)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려 죽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미용실
오픈1주년 - 고객 감사 대잔치
한국 청담동의 스타일과 베버리힐스의 기술이 만나는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매직 스트레이트 헤어를 50% 할인해 드립니다
$200up Regular Price
$100up
컷트하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로 코팅또는 염색을 해드립니다
* 1주년 행사기간은 2010년 4월 30일 까지 입니다.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곳-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한함.
편리한 주차장
160대의 넓은 실내 파킹장
웨스턴 길에 있는 주차장 입구로 들어 오셔서 2층에 주차하시면 2층에서 바로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오세요)
LA 최고의 위치- 머큐리 콘도 상가 2층
윌셔 + 웨스턴 코너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HAIR SKIN
3800 Wilshire Blvd., #207G L.A., CA 90010 Tel: 213-739-1022
스킨케어: Tel: 213-381-6485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10:00 PM

이철 칼럼



이 철 목사
가나안교회

신앙의 금메달을 향하여...

동계올림픽이 열린 캐나다 벤쿠버에서 들려온 한국 선수들의 연이은 승전보는 우리의 가슴을 벅찬 감동으로 채웠습니다. 환한 미소를 가득 머금고 시상대에 우뚝 선 그들을 볼 때 우리 가슴이 뭉클해져 옴을 느낍니다. TV의 화면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들의 모습은 화려한 조명뿐이지만 그 웃음뒤에는 분명히 각고의 노력과 가슴으로부터 토해져 나오는 눈물이 있음을 잘 압니다. 이렇게 기분좋은 뉴스를 들으면서 기성세대분들은 한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의 초반을 멋지게 장식한 한국 빙상선수들의 선전을 보면서, "아니 한국이 이런 종목에서도 금메달을 따네..." 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불과 20-30년전만 해도 워낙 서구 선수들과의 체격및 체력의 열세가 있어서 한국 선수들은 자신에게 도전하기 적당한 경기종목에 주로 집중했던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 선수단이 좋은 성적을 거둔 스피드 스케이트 종목 역시 우리 한국 선수단과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동안 가져왔던 편견과 선입관이 너무 기분좋게 깨진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물론 한국의 경제와 산업이 발전되어 한국인의 체형과 체력이 서구화된 연유도 있겠지만 그런 외형적인 이유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거둔 좋은 결과는 자신과의 고독하고 처절한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치면 주저앉아 쉬고 싶고 너무 힘들면 포기하고 싶은 본능과의 처절한 사투에서 승리한 댓가로 그들의 목에는 금메달이 주어졌다고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이 잘 갖추어진 가운데 딴 금메달도 소중하지만, 거의 볼모의 땅과 같은 척박한 현장속에서 거둔 승리이기에 더욱 값지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맞닦뜨리는 각종 장벽들이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공격해오지만, 복음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고 멈추지 않는 승전가를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어떠한 역경과 환란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계십니까? 거꾸러뜨림을 당하셨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를 집어 삼킬것 같은 기세의 풍랑위에 굳건히 서계신 예수님을 견고하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한눈 팔지 마시고 오직 그분에게만 집중하십시오. 그럴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승리의 찬가로 가득찰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루어내는 믿음의 승리를 보시며 뜨거운 눈물로 감격하실 것입니다.

고승희 칼럼



고 승 희 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무 쓸모 없다고 생각할 그 때 할일이 있다

팻 노드버그(Nordberg.) 라는 여자 분 이야기입니다. 그 분의 삶의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이고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분은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크리스찬 아동 심리학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뇌 수술을 받다 잘못해서 그만 정신 장애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날마다 쓸쓸한 요양소 벤치에 앉아 '왜 하나님은 내게 이 같은 고난을 주시는 걸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만이 있었습니다.

햇볕이 따뜻한 어느 날 오후 팻은 요양소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때 한 어린아이가 그녀의 눈에 띄었습니다. 팻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말 할 수 없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어린 이 아이는 팻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팻은 그 아이를 데려다 자기 옆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번도 그처럼 따뜻한 사랑을 받아 보지 못한 아이였기에 팻의 친절이 눈물겹도록 고맙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아이의 눈물을 본 팻은 그때이 렇게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한 번 쓰다듬어 준 것이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이토록 큰 기쁨을 줄 수 있단 말인가 ? 이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한다면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겠구나 내가 아동 심리학 공부를 하여 더 많은 어린이들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 상처 받는 아이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팻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같은 아픔을 가진 아이들의 그 아픔을 이해하고 불쌍히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팻 노드버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팻은 용기를 내어 대학문을 두드렸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팻은 잠을 자지 못하고 열심히 공부해도 뇌의 상처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한 끝에 뇌 수술을 받은 지 14년이 되던 해 마침내 팻은 석사 학위를 수여 받았습니다. 눈물겨운 승리였습니다.

그녀가 겪어야 하는 모든 악조건이 오히려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 사명이 있기에 그녀는 공부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기에 그녀는 이제 유능한 기독교 아동 심리 학자 중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할 그 때조차도 사실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팻 노드버그가 요양소에서 한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 것같은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치 못한 그 사소한 일을 통하여 위대하신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하실 것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 중 사소한 일 한 가지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계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팻 노드버그도 바로 한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이 계기가 되의 그의 인생이 바뀌고 유명한 아동 심리학자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은 오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도 역사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네 시작은 미미하지만 네 끝은 창대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작은 시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안인권 칼럼



안 인 권 목사
새소망교회

운명이 흐르는 깊은 고랑

사람은 누구나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습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긴장하면 다리를 떨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신다거나, 매일 아침 조깅을 한다든지 다양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은 편하고 익숙한 무의식적 행동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을 사소하게 여기고 지나칩니다.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되풀이 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방식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이미 몸에 익은 것을 바로 잡으려면 몸과 마음이 모두 귀찮게 여기고 나쁨에도 불구하고 편하고 익숙한 옛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습관은 단순히 자기 계발이나 성공학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철학과 심리학 행동과학 등에 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관계됩니다. 습관은 오래 전부터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그 옛날에 자신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덕을 쌓는데 습관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덕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덕이 있는 행동이 쌓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저서(심리학의 원리 The Principles of Psychology)에서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 라베송 몰리앵은(습관론)에서 "의식은 지식을 포함하고, 이 두 가지는 어떤 행동을 통해 전개된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본능은 평생 따라 다니지만,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 생기는 제2의 본능은 얼마든지 고치거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윌리엄 제임스의 말처럼 습관은 인생의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 문호 도스토옙스키 역시 "습관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습관은 한 사람의 삶을 좌우하고 성공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풍부한 지식이나 피나는 노력이 아니라 바로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을 사소하게 여기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운명을 바꿀 기회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한 번의 생각과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습관 하나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끈기를 가지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그렇다면 이 추상적인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공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인가? 많은 점이 다르겠지만 가장 큰 결론은 습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소하다고 생각해 지나치고 말았을지도 모를 '습관'이 성공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 가운데 하나란 사실입니다. 사소한 습관은 그들의 인생에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아직 성공을 거두기 전, 청년 빌 게이츠의 습관 중 하나는 예의가 바르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IBM에서는 개인용 컴퓨터에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찾고 있었는데, 이미 다른 유명한 소프트웨어 회사와 접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IBM의 이사가 방문했을 때 그 소프트웨어 회사 사장은 무례하게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마음이 상한 IBM의 이사는 이름도 없는 마이크로 소프트를 찾아갔고 그곳에 정장 차림을 한 예의 바른 빌 게이츠를 만났습니다. 예의 바르게 대하는 작은 습관은 그가 성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가 포옹하며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탁월한 습관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공의 열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습관에 있습니다.





박성근 칼럼



박 성 근 목사
LA한인침례교회

손에 잡은 것을 놓아 버리는 용기

인간에게는 소유욕과 성취욕이 있다. 이것 자체가 꼭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것이 정도를 넘어서서 과욕이 된다거나 이것 때문에 인생의 더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로리 베스 죤스(Laurie Beth Jones)가 쓴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에 보면"인디애아 존스: 마지막 원정"이라는 영화가 소개되고 있다. 이 영화는 인디애나와 그의 아버지가 보석을 찾기위해 우여곡절을 겪는 내용을 담고있는데, 많은 모험과 긴박한 위기들을 겪으면서 드디어 인디애나가 보석을 손에 쥘 찰나를 맞게 된다. 그러나 그 보석은 갈라진 낭떠러지 밑에 놓여있다. 보석을 잡기위해 인디애나가 벼랑 끝에서 손을 뻗는데 그 자세가 너무 위험하다. 곧 균형을 잃고 천길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 상황인데 아버지가 "그냥 놔 둬"라고 말한다. 그 순간 인디애나의 얼굴에 분노가 나타난다. 생사를 건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놓아두라니 이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인가? 다시 손을 뻗으려는 인디애나의 팔을 굳게 잡은 아버지가 "그냥 놓아두자(Just let it go)"고 간곡히 속삭인다. 결국 인디애나는 보석을 포기하지만 보석보다 더 소중한 생 명을 건지게 된다는 스토리이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손에 잡은 것을 놓지 못함에 있다. 권력이건, 명예이건 한번 장악한 것은 놓지 않으려 하기에 추악한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 결과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정치가들의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는 것도 이런 경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용기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가 소유한 영광도, 그가 심혈을 기울여 이룩한 사역 터전도 때가 되면 버리고 떠날 줄 아셨다.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주님은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초를 닦으셨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그 사역에 전부를 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장악해야 한다는 집착에 빠지지 않고 사역의 터전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남겨 두신 채 떠나셨다. 이것이 주님의 위대하신 점이라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가? 한번 잡은 것은 놓지 않으려 한다. 자신의 손에 장악된 성공은 끝까지 소유하려는 집념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소유에 대한 지나친 욕구가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삶의 균형을 잃게 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성공에 대한 욕심 훌훌 털고도 기쁘게 달 려갈 순 없을까? 썩어질 영광이라고 역설하면서도 성공병에 시달리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다.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놓 아 버릴 줄 아는 용기, 이것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

한방 칼럼

기침 (3)

그동안 기침에 대해 여러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평소 기침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온도가 중요한데, 낮은 온도 보다는 약간 포근한 정도로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찬바람이나 찬 기운을 피하고 찬 음식도 삼가하며 여름철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너무 시원하게 틀지 않도록 합니다.

습도 또한 중요한데, 건조하면 폐와 목에 자극이 가해져 기침이 심해지므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을이나 겨울철이 되면 더욱 건조해지면서 기침이 심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약 50%는 최소한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가습기나 젖은 수건 등으로 적정 습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볶은 은행알 3개 정도를 매일 꾸준히 복용하면 도움이 되고 가래가 섞인 기침을 할 때에는 도라지와 은행 각 20g을 물 500cc 에 넣고 달여서 차처럼 마셔도 좋습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도라지 10g, 살구씨 10g, 오미자 8g, 잔대 15g 등을 하루 분량으로, 합하여 다려서 매 식전 30분에 3회로 나누어 복용하도록 하고, 또 영지버섯을 하루에 5~10g 정도 달여서 복용하거나 구름버섯은 20g 에서 50g 정도를 끓여 차처럼 복용하면 기침의 예방과 치료에 매우 유효하다고, 문헌에도 기재되어 있고 임상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영양섭취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금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식품 중에 기침에 도움이 되는 차를 소개하면, 우선 폐를 윤택하게 하고 기침을 멎게 하여 폐음부족으로 인해 빚어진 오래된 기침에 가래가 끓는 증상을 치료하는 참깨 아몬드 차가 있습니다. 검은 깨10g, 아몬드 8g, 설탕 또는 벌꿀 약간을 준비하여, 검은 깨는 깨끗이 씻은 다음 약한 불에서 볶아서 말리고 아몬드도 씻어서 그 표면의 물기를 제거한 후, 이 두 가지 재료를 함께 찧어서 끓는 물을 부어 우려 냅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 설탕이나 벌꿀을 조금 섞어서 하루 2~3회 정도 마십니다.

기침이 좀 더 심한 경우엔 감초(볶은 것) 20g, 맥문동 10g, 오미자, 인삼 각 4g, 쌀 2홉, 대추 3개를 준비하여 물 1리터에 쌀을 넣고 끓여서 익은 다음 쌀을 건져 내고 그 끓인 물에 감초, 맥문동, 오미자, 인삼, 대추를 넣고 20분 정도 더 끓인 후 몇 차례에 나누어 복용하는데 목이 간지러우며 기침이 나올 때는 현삼, 길경을 6g 첨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밖에 둥굴레, 유자차, 생강대추차 등도 기침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침이 오래도록 계속되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적절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 선 혜 원장
LA 동국대학교 한방병원장

LA 동국대학교 한방병원장
조선혜 213-487-0150



김지성 칼럼



김 지 성 목사
글로발선교교회

"코메리칸이 선택받은 이유"

한국을 모국으로 미국에서 생활하는 우리 한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와서 생활을 해야하는 이유가 각기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한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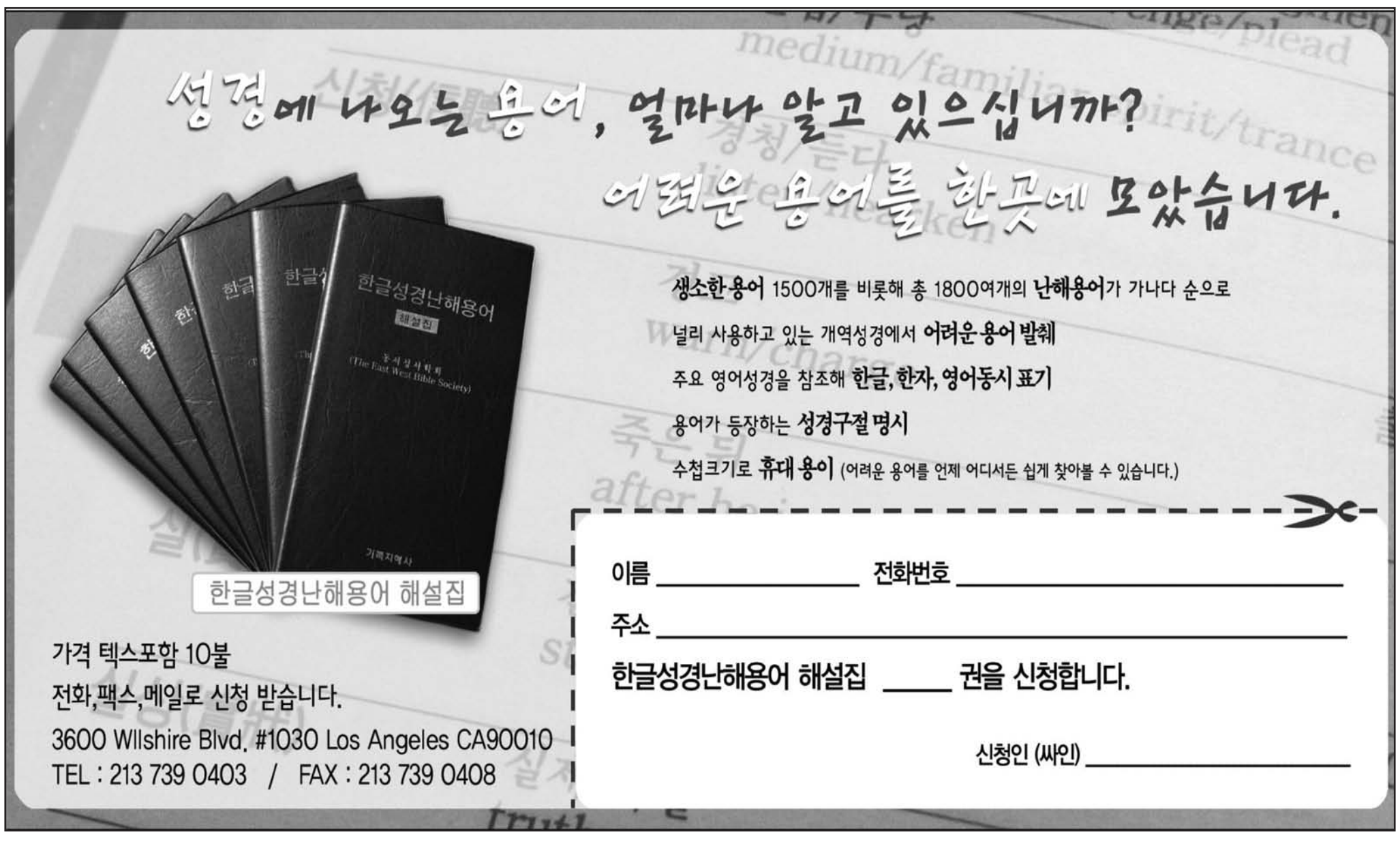
현재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한 세계 초강대국입니다. 경제적인 불황의 여파로 그 힘이 많이 위축되었다고 하나 국력면에서는 아직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최강의 힘을 가진 21세기의 제국이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힘은 경제력, 군사력, 정치력, 문화창조력등 모든 영역에 최고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래 학자들은 세계 최강 미국의 힘은 적어도 향후 20년간은 부동의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미국이 만드는 영향력은 아직도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여전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21세기에 들어서며 동북아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반세기 전만해도 이데올로기에 의한 정치, 경제, 군사의 희생물로 열강의 눈치만을 보아왔던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빈약한 자원, 열악한 인프라, 부족한 재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로 알려진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토의 분열로 인한 냉전의 위기속에서 미래를 보장받기 어려운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한국이 경이로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작지만, 강한 나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초강대국 미국, 그리고 미래를 선도할 한국. 이 두나라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대국이라는 점입니다. 복음을 전세계에 전하는 일에 이 두나라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1,2위의 국가는 미국과 한국입니다. 이 두나라에 속한 교회들은 복음주의 정신에 따라 영적인 영향력을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힘, 그리고 한국의 힘을 동시에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미국땅에 살고 있는 코메리칸들인 한인들입니다. 한민족으로서 우수한 두뇌와 명석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유의 근면성, 인내, 끈기로 무장되었기에 언제든지 그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자들입니다. 동시에 우리 한인들은 미국의 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한민족의 우수성을 혈통으로 이어받았으며, 세계최강의 나라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워가며 세계의 공용어인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고 있는 키워드는 '영향력'입니다. 현재의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면, 미래의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나라가 한국이 될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영향력을 동시에 공유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인들입니다.

역사는 '영향력을 가진 존재들'에 의해 움직여 왔습니다. 성경은 역사가 '영적파워'를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주로 역사의 중심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나안으로 이동되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등장으로 팔레스틴 지역의 주인은 히브리 백성의 차지가 됩니다. 다윗의 등장으로 블레셋과 주변국들의 지위는 몰락하고 이스라엘은 당대 최고의 강국으로 등장합니다. 에스더의 등장으로 인종말살을 당하기 직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힘을 얻고, 그들을 억압하며 힘을 과시했던 하만과 그의 추종세력들은 힘없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2010년 이후 현재와 미래를 위한 영향권을 행사할 나라는 미국과 한국입니다. 그 가운데서 '영적파워'를 가진 자들에 의해 영향력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깔뱅의 개혁과 개신교 신학의 밑거름 된 마틴 부쳐

〈 프랑스 종교 개혁의 발자취를 찾아서 〉 스트라스부르

마틴 부쳐는 결혼으로 파문을 당하지만, 성 토마스 교회에서 사제가 아닌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개혁 사상의 열렬한 수호자(守護者)가 되어, 깔뱅에게도 많은 사상적 영향을 끼쳐 성숙한 개혁자가 되는 데 이바지한다. 부쳐와 함께 1506년-1541년까지 주교였던 기욤까지도 자신에게 속한 성직자들의 개혁을 시도하므로, 1524년에는 자신들의 언어인 독일어 미사가 시작되었다. 나아가 개혁자들은 교회 안에서 비성경적인 가톨릭 요소들을 제거하였고, 가톨릭 예식 철폐 및 성상(聖像)들을 철거하며 사제들을 추방하였다.


성 토마스 교회의 마틴 부쳐 목사가 세운 학교가 현 스트라스부르 대학의 모체가 된다.

개혁자들 가운데 교육에 큰 관심을 가졌던 쟈크 스트럼(Jacques Sturm 1489-1553)과 쟝 스트럼(Jean Sturm 1507-1589)이 있었다. 쟈크



깔뱅을 잘 위로하며 많은 사상적 영향을 끼쳤던 마틴 부쳐 목사

는 알사스 사람으로 1524년부터 의원이 되어 국민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많은 학교들을 세우며, 개혁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는 죽었을 때 "Pere de la patrie (조국의 아버지)"라 불렸으며, 깔뱅으로 하여금 교회의 정치적 개념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1530년경에 프랑스 위그노 도피자들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만들기도 한다. 1535년에는 도미니카 수도원에 책을 기부하고 진열해서 국민 도서관을 만들었고, 그곳에는 이미 1524년부터 7명의 교수로부터 시작된 신학 수업이 있었다. 까삐또는 구약, 부쳐는 신약, 에디옹은 역사와 신학을, 유대인 Antonin은 히브리어, 헬라어와 수학, 프랑수와 랑베흐(Francois Lambert)는 호세아서와 주석에 관한 강의 신학 교육도 행한다.

또한 쟝 스트럼은 프랑스 출신으로 꼴레쥬 프랑스(College de France) 교수로 깔뱅을 가르쳤고, 깔뱅이 1537년 처음 스트라스부르로 올 때도 그가 초청하였다. 그는 스트라스부르 짐나스(Gymnase)를 창시하여 학교 교육을 실시하였고, 깔뱅도 이곳에서 강의하였다. 오늘날까지 쟝 스트럼의 짐나스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으며, 깔뱅이 가르쳤던 강단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또한 1538년에는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놀리는" 학생들을 엄벌하는 제도를 만들기도 했다. 이 두 스트럼의 노력에 의해 1531년 가톨릭 교회였던 성 토마스 교회가 개신교회로 바뀌게 되고, 그 해 마틴 부쳐가 목사로 부임한다. 부쳐는 교회의 연합 운동에 주력하며, 개신교 신앙에 입각한 고등교육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18세기 대학 가운데 유명한 스트라스부르 대학의 기원이 된다.

개혁자들의 이런 노력으로 1530년부터 스트라스부르는 개혁의 중심지가 되었고, 1539년과 1541년 사이에 재세례파들이나 깔뱅과 같은 종교적 망명자들이 이곳으로 많이 피신하게 된다.

마틴 부쳐는 개혁가들 중에 가장 영향력을 가진 사람 중 하나이다. 그는 젊은 깔뱅이 체류할 수 있도록 잘 돌봐주었을 뿐 아니라, 많은 사상적 영향을 끼쳐 깔뱅으로 하여금 완숙한 개혁자가 되게 하였다. 또한 교육가 쟈크(Jacaues Strum)와 쟝(Jean Strum)과의 만남을 주선하므로,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깔뱅은 학교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훗날 쥬네브(제네바) 아카데미 설립에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

마틴 부쳐는 자신의 집에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루터의 칭의 교리를 가르치지만 루터와 차이점이 있었다. 사람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가르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을 중단시켰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가까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의 영을 주셨기에, 섬김을 통해 교회와 사회의 다양한 개혁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다양하고 다른 개신교 교회의 일치를 위해 노력을 한다. 비텐베르그의 개혁자 루터와 쯔리히의 개혁자 쯔빙글리 사이에 성찬에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를 "온유한 화해의 사람"이라고 불렀다.

부쳐는 황제와 주교의 연합 압력에 항거한 시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549년 4월 스트라스부르를 떠나야 했다. 켄터베리의 대주교 토마스 크랜머의 초빙을 받아 영국으로 건너가 캠브리지 대학교의 교수로 있으면서, 그곳에서 영국 국왕 에드워드 4세로부터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도착한 지 채 2년이 못 되어 1551년 사망하게 된다. 그는 1549년에 성공회 예배 예식서인 「Book of Common Prayer」의 증보판 발간에 참여함으로써 성공회 예배의식 개혁에 크게 기여하였고, 「그리스도의 통치론」을 에드워드 6세에게 헌정함으로 영국교회의 개혁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부쳐는 1551년 2월 28일 캠브리지에서 죽어 대학 교회에 안장됐으며, 장례식에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3,000명의 사람들이 운집하였다.

그 후 피의 여왕이며 가톨릭 시대로 되돌린 메리가 통치하는 동안 그의 유해가 파헤쳐져 캠브리지 시장(市場) 광장에 나무기둥에 묶인 채 불태워졌다. 그러나 메리 튜더의 통치는 오래가지 못하였고, 3년 후 엘리자베스 1세 즉위 후 엄숙히 사면되었고 그의 무덤은 가묘로 복구되었다.

부쳐와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Conrad Hubert는 이렇게 마지막을 글을 남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많은 종들 가운데 그는 결코 부족함이 없었다".

그의 지칠 줄 모르는 교회 일치를 위한 노력과 끊임없는 활동은, 그가 죽고 나서도 오랫동안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부쳐의 신학적 중요성은 20세기에 와서 재조명되었다.

마틴 부쳐의 이름은 깔뱅처럼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는 당대의 가장 영향력있는 개혁자였으며, 그의 성경 주석은 후대의 주석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개신교 신학 형성에 있어서 밑거름이 되었다.


마틴 부쳐 목사가 목회하였던 성 토마스 교회당은 1531년에 가톨릭 교회에서 개신교 교회로 바뀌게 됨.



기독일보와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선교회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 영어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228-9540 / FAX : 714-521-4636 thanksgivingchurch.com



소중한사람들(구,거리선교회)

대표: 김수철 목사

매일 오전7시 (다운타운 4가 Crocker st.)찬양과 나눔예배
주일 1부 오전7시 거리예배 / 2부 오전9시30분 센터예배
한인홈리스자활센터 운영, 후드빙크 운영, 한국노숙자 무료급식 및 노숙자전용교회, 센터운영, 미얀마 무료급식 및 고아원 운영, 중국, 멕시코, 북한 무료급식 지원사업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www.ppeople.org
Tel: 213-385-4515 Fax: 213-385-5474 E-mail: streetla@yahoo.com



구세군나성교회

담임:김옥균 사관

주일예배:오전11시
새벽기도회(화-금):오전6시20분
수요예배&성경공부:오후6시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el:213-480-0714 www.salvationarmy.com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310-793-2297, 2298(Fax) www.wbpcusa.com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지유철 목사

주일1부예배 : 오전 8:00
주일2부예배 : 오전 9:30
주일3부예배 : 오전 11:30
영어예배 : 오전 11:30
새벽예배 :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금요예배 : 저녁7:30 / 저녁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 Fax: 323-913-4494 lafgcusa@yahoo.com



동양선교교회

임동선 원로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7시00분
주일 2부예배: 오전8시30분
주일 3부예배: 오전10시15분
주일 4부예배: 오후12시15분
주일 5부예배: 오후2시30분
FAMILY CHAPEL E.M SUNDAY: 12:00 PM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el:323-466-1234 www.omc.org



갈릴리선교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 : 30 | 어린이부 : 오전 11 : 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 : 00 | 새벽기도회(화~금) : 오전 5 : 30
youth : 11 : 00 | 토요연합새벽(토) : 오전 6 : 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el : 323-735-6412, www.gmcchurhc.com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한어 KM예배 : 1부 오전 8시 / 2부 오전 11시
영어 EM예배 : 1부 오전 11시 / 2부 오후 1:30
영어 EM예배 :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 오후 7:30 / 새벽기도 : 05:3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el:626-793-0880/0220 Fax:626-793-6412 dreamumc.com



기독교 대한감리회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8시 | 수요예배: 7시 20분
주일 2부예배: 오전9시30분 | 한국학교 오전 10시
주일 3부예배: 오전11시30분 | 뮤직 아카데미
주일 4부(청년): 오후1시30분 | 오후 1시 30분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el: 213-365-6191 / FAX 213-365-6291 lakmc.onmam.com



오렌지새영교회

담임: 임병철 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 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기도 : 오전5:30(월-금)
오전 7:00(토)
셀모임 : 오전 7:00(토)

315 S. Knott Ave.#206 Anaheim, CA92804
Tel : 714-900-1008 comingj@gmail.com



SL 임마누엘선교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11시, 오후 3:00
찬양예배와 기도 (매일): 저녁 7:00

SOLOMON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 (PH.D)
부총장: Dr. Brent Price

3921 Wilshire Blvd., #400-408, LA, CA 90010
Tel: 213-381-7755 / Fax: 213-380-7755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주일1부예배 : 오전 7:30 늘푸른예배
주일2부예배 : 오전 9:40 아름다운 예배
주일3부예배 : 오전 11:20 오직주님예배
주일4부예배 : 오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el: 714-524-2029 Fax: 714-524-8844 www.sstpc.net



새창조교회

담임 최학량 목사

주일예배 1부 / 2부 오전 9시 / 11시
찬양경배 오후 1:30
새벽기도 새벽 5:30
수요예배 오후 7:30

23814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EL 310-325-0501 / FAX 310-325-4282



에바다선교교회

담임 이승준 목사

주일예배 : 오전 11시
새벽예배 : 새벽 5:30 (월-금)
수요예배 : 오후 7시
청년부예배 : 1, 3, 5째주 토요일 오후 7시

2221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9-2671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주일 1부 예배 :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45
주일 3부 (EM) : 오후 2:00
새벽기도회 : 오전 5:30, 오전 6시(토)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el : 626-810-3455 / Fax : 626-964-5559 beautifulchurch.org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 엄규서 목사

주일예배: 1부 8시30분 / 2부(영어예배) 9시45분
3부(전통예배) 11시30분 / 4부(찬양예배) 2시
주일학교: 11시30분 토요젊은이 예배 6시
새벽기도회: 6시 수요예배: 7시30분 금요기도회: 8시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 213-382-5658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칠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8시
주일 2부 (영어)예배: 오전 9시 3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새벽기도 (화-금) 오전 5시 30분, (토)오전 6시

14555 Valley View Ave, Suite C,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 714-236-0256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주일1부예배 : 오전 8시
주일 2부 예배 : 오전 10시
주일 3부 예배 : 오전 12시
주일4 예배 :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1,714,446,6200 Fax: 1,714,446,6207 gracemi.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30
주일예배 3부 오후 12:40
수요/금요예배(LA)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www.gcjc.org



영생장로교회

담임: 김혜성 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주일예배: 2부 오전 10시
주일예배: 3부 오전 11시30분

1829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교회 : (323) 732-7356 목사관 : (818)993-3574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주일 대 예배 오전 11시
수요 찬양 예배 오후 7시 30분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 310-530-8400 comecornerstone.com



축복교회

담임 김인경 목사

주일1부 오전 9:30(영어) / 2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토) 새벽 5:30
Cell Church (금) 오후 8시
청소년 예배 (토) 오후 7:30
Leadership Traning (토) 오전 10:30

2080 La Puente Rd., Walnut, CA 91789
Tel 909-598-7731 Fax 909-594-5955 Walnutblessing.com



하나로교회

담임 박문환 목사

주 일 1부 예 배 오전 8:40
주 일 2부 예 배 오전 10:40
주 일 3부 예 배 오후 2:00
찬양기도회 오후8시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233 English Rd., Chino Hills, CA 91709
Tel: 909-464-9210 / FAX 909-548-4536 hanarochurch.net



헤브론교회

담임 강진웅 목사

주일1부예배 : 오전 8:30
주일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 오후 1:45 (새 세대 예배)
교육부 예배 : 오전 11시 4층
AWANA 주일 오후 1시 4층 체육관
수요 워십 콘서트 : 오후 7:30

4050 W. Pico Bl.,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5-8677 , 323-735-8888 FAX 323-735-9606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헌성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8시 - 주일 영어예배
주일 2부예배: 오전9시30분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11시 - 찬양예배 오후 3:30
주일 4부예배: 오후12시30분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춘근 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30분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금요예배: 오후8시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el: 310-940-1646 / 714-397-2875



새생명장로교회

담임 정철 목사

주일 1부 EM예배 : 오전 9:30
주일 2부 대예배 :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주일) : 오전 6:00
수요성경공부 : 오후 8:00

23662 Birtcher Dr, Lake Forest, CA 92630
Tel: 949-458-9191 Fax: 949-459-9158 / www.newlifekpc.org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주일 1부 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주일 EM 예배 : 오전 11:00
청년예배 : 오후 1:00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90020
TEL : 213-383-2939 NEWLIFEOASIS.ORG



나성소망교회

담임 김재율 목사

주일 기도회 : 오전 9:50분
주일 예배 : 오전 11시
주일성경공부 : 오후 12:45
토요일(Youth) 중고등부 모임 : 오후 4시

1000 Venice Blvd, LA CA 90015
Tel : 213) 550-7377



살을 변화 시키는 소그룹 성경공부

Coffee Break Small Groups

한인사역대표 백은실 집사

www.coffeebreakkorea.org
coffeebreakgrace@hotmail.com

주소 8208 Peppertree Ln., Cypress, CA 90630
Tel 714-995-4461 Fax 714-974-3017



쉼 있는 교회

담임 이철기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금요 성경공부: 오후 8시
새벽기도 토요일: 새벽 6시

901 W.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293-1257 / ShimChurch.org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주일1부 오전 8:30 본 당, 2부 영어예배 오전 11:00 EM 예배당, 3부예배 오전 11:00 본 당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당
유아유치부 주일 예배 오전 11:00 유치부 실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90248
T (310) 719-2244 F (310) 719-2229



얼바인침례교회

담임:한종수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7시45분
주일 2부예배: 오전9시45분
주일 3부예배: 오전11시45분
주일 4부예배: 영어예배 :오후1시35분
새벽기도 (화-토) 오전5시30분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el :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파사데나 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주일예배
영어예배 : 주일 오전 10시
스페인예배 : 주일 오전 10시
한국어예배 : (1부)주일 오전 9시
(2부)주일 정오 12시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분
토 오전 6시
수요예배 오후 7시45분

585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1
Tel 626-795-6252 Fax 626-584-6544 www.weppc.net



그레이스마운트교회

담임 김기한 목사

주일 예배 : 오전 11시
수요 예배 : 오후 7시
새벽 예배 : 오전 6시

3550 W, 6th St, LA, CA 90020 Tel: 213-448-9999



충현선교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

주일 예배 1부 : 오전 8:00
주일 예배 2부 : 오전 9: 30 (열린예배)
주일 예배 3부 :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 오후 7:30 (수요일)

4565 W Colorado Blvd., LA, CA 90039
Tel: 818-549-9191 / www.choonghyun.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주일1부예배 : 오전 8:30
주일2부예배 : 오전 11:00
중고등부 : 오전 11:00
유년주일학교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 / 새벽예배 : 오후 1:00 / (월-토) 주일 오전5:30
수요예배 저녁7:30

111 S. Mariposa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3-9182 / FAX213-251-9182 lamsch.com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주일 1부예배 :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 오전 10시
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
주일 4부(청년): 오후 1: 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el: 714-680-9556 Fax: 714-680-6418 dongshinchurch.com



한인어린이회

(어린이 선교회)

비영리 법인주 연방정부IRS

회장: 테레사엄 목사

문의: 213-380-1112



예수마을교회

담임 정인호 목사

주일 예배 : 오전 9:30 / 오전 11시
주일 학교 :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 고등부 : 오전 11시 / 오후 1시
금요중보기도 : 오후 1시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el: 213-739-0515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주일예배 1부 : 오전 9시
주일예배 2부 : 오전 11시
주일오후찬양예배 : 오후1:30
금요예배 : 오후 8시
새벽예배(매일) : 새벽 5:30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 : 213-380-9377, Fax : 213-380-9378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주일1부예배 : 오전 9시
주일2부예배 : 오전 10시
주일3부예배 :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 오후 7:20 교회본당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www.junimchurch.com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주일1부예배 : 오전 9시
주일2부예배 : 오전 11:30
오 후 예 배 : 오후 2시
영 어 예 배 : 오후 2시
새 벽 예 배 : 오전 5:30 / 금요찬양 : 오후 8시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el : 818-249-2871 Fax: 818-249-0516 / www.laapc.org

임마누엘헬로십교회

담임 안충기 목사

주일학교(Joyland) : 오전 11시
중고등부(Dream Team) : 오후 1:15
청년부(Feet Team) : 오후 1:15
장년주일학교 : 오후 1:15

14300 Leffingwell Rd, Whitter, CA 90604
Tel : 562-944-8082

인랜드교회

담임 최병수 목사

주일예배 1부 :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 오전 9:30
주일예배 3부 : 오후11:30
새벽기도회(월-토) : 새벽 5:30

110 N. Glen Ave., Pomona, CA 91768
Tel: 909-622-2324 Fax: 909-622-1480 www.inlandchurch.org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김요섭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8시 (본당)
주일 2부예배: 오후1시 (본당)
장년성경공부: 주일 오전 11시 (제2교육관)
주일학교/중고등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새벽예배 (화-토) 오전6시 (본당)

교회: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제2교육관: 3440 Wilshire Blvd, Suite 276, LA CA 90010
Tel: 213-215-8523 / www.scrdm.org

중앙아시아선교회

대표 정기철 장로

CENTRAL ASIA MISSION

18781 E, Colima Road, Rowland Heights, CA 91765
Tel: 626-533-5300 Fax: 626-912-7453

세계소망교회

담임: 오세훈 목사

주일 1부 : 오전 8시 30분 | 수요예배 : 오후 7시 30분
주일 2부 : 오전 11시 | 금요예배 : 오후 8시
주일찬양 : 오후 1시 30분 | 새벽예배 : 오전 5시 30분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교회 : (213) 745-9191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의 정육점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Prime과 Choice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갈비 전문점/교회 단체 특별가격
프리임 생등심 / 프리임 갈비살 / 샤브 샤브
프리임 꽃살 / 초이스 찜갈비 /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오리고기 / 흑염소 / 돈까스/비프까스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11가점 (1호점) Tel 323.733.4677

훼밀리 종합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 리스 · 중고차 매매

김기형
여러분의 중고차를 가장 좋은 가격에 매입하겠습니다
정직·신용·믿음으로 모시겠습니다
213.453.59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이사는 한강(漢江) 이삿짐에서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한국인이 직접 포장하고 정리정돈까지 답답하고 속터졌던 경험들 이제 여러분의 KEY를 한강에 맡겨주세요! 한강은 양심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국식 포장 및 정리정돈까지"
L.A 213.386.2424 O.C 949.784.2424
Hankang Local(시내) 이사 전문 • 무료견적 서비스 • 야간이사 OK

무보험 가족을 위한 희소식 $40 한달 온가족
비싼 병원비가 걱정되십니까?
건강보험은 너무 비싸 가입을 못하십니까?
당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하루에 1불 조금 넘는 적은금액으로 지키세요. American Workers Association에서 제공하는 Pro Patient Advocacy 플랜은 비싼 병원비를 절감 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40 한달 온가족
지금 전화 주세요
JAMES JHUNG (제임스 정) EXECUTIVE DIRECTOR
Tel : 213.725.7217 ····· 세일즈 하실분 모집

HANMI MEDIA 녹음실
▪ 개인, 성가대 CD제작
▪ 설교 - 교회- CD - DVD
▪ 영상 -제작 편집
Tel. 323.661.8626 / hanmi-media.com
4418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lifornia 90004

훼밀리 만물상
주 7일 OPEN
가정용, 사무용, 모든 가전제품 좋은 가격에 사고 팝니다.
세탁기, 드라이어, 냉장고 수리 교환 및 판매, 운반 설치
전화문의 환영 T.213-247-9555

SK smart-naephone
✓SK한국전화기를 설치, 한국전화번호를 받고 한국시내요금으로 미국, 한국 양방향 통화
✓서울전화번호만 누르세요
✓분당 2¢의 저렴한 요금
Taurus System USA Inc.
문의 : 213-435-0608

반값으로 할 수 있다!
-차바디수리 50% 절약-
"획기적인 바디수리 시스템"
오토맥스 오토바디
213-265-8485, 213-388-4464
Main Office 2975 Wilshire Blvd 350 Los Angeles, CA 90010

결혼 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가나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장례꽃 (Funeral)
- 교회꽃 (Church)
- 생일 꽃다발 (Bouquet)
- 각종 개업용 화한 및 화분 (Plants)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자체사옥, 자체차량, 전문고급인력, 30년 경험의 현대가 여러분의 소중한 이삿짐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하여 드립니다.
전 미주 지역을 완벽하게 커버하고있는 현대통운의 지사망을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타주 이사 / 시내 이사 / 귀국 이사
무료전화 1-866-545-2424
323.766.1111
현대통운
3022 S. Western Ave, LA, CA 90018
www.HyundaeMoving.com e-mail : skook@hyundaemoving.com

LANCE WANG
커텐
Window Treatement
타운의 유일한 디자이너 커텐 전문점
신세대 혼수 / 침대커버 / 쿠숀
최고급 유럽원단
저렴한 가격 / 무료견적
Cushions, Bedding, Collectibles
213-384-5844, LA / 3가의 웨스턴
www.Lancewanginterior.com

블라인드 카텐 전문 업체
MR박을 찾아주세요!
CITI BLINDS.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장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한국 ₩ ⟷ $ 미국
당일 동시 (고액 전문)
(213) 388-4989
소액도 가능합니다

건축 설계 도면 디자인
PLove.Net
이경신 Kyong S. Lee (Mary)
Interior & Landscaping Designer,
Architecture Web & Graphic Designer
ARCHITECTURE DESIGN
INTERIOR DESIGN
LANDSCAPING DESIGN
PERMIT DRAWING
E-2 Visa 및 투자 이민 가능하며, 언제든지 투자 상담 환영합니다.
미국으로 이민해서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Income이 나올수 있도록) 설계해 드립니다.
※ 컴퓨터 개인교습도 가능합니다.
Subject : Microsoft Office, Word, Excel, Powerpoint Photoshop, Illustrator, Webdesign course
Tel. 213-284-4111

K.KOH 루핑 Lic. #717364
모든 종류의 지붕
상업용 / 주 택 / 아파트
• Roof Maintenance • Roof Certification • Roof Cleaning
• Partial Wood Repair • Balcony & Walk way deck • Waterproofing
지붕 박사 윤박사가 잘 훈련된 직원들과 함께 최상의 Service를 약속 드립니다.
• 무료견적 • 보험가입업체
(714)200-7552 (213)663-2306

"모든 자동차 유리 수리 즉시 해결해 드립니다."
아메리칸 자동차 유리
Cheap Repair!
◆ Foreign & Domestic Car
◆ 새 유리 & 중고 유리
◆ 넓은 웨어하우스 인벤토리
◆ 무료 전화 견적
◆ Low, Low Prices
◆ Complete 오토글래스 서비스
◆ 한국어, 스패니쉬, 영어 서비스
◆ Stone Damage 수리
돌 맞은 곳 때워 드립니다.
www.americanautoglassinc.net
Tel : (323) 752-1820
2052 W. Florence Ave, Los Angeles, CA 90047

나라 이주 공사
정직, 성실,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시민권 신청, 영주권 신청
• 영주권 갱신 및 분실
• 재입국 비자
• 소액재판 신청, 번역/통역
• 메디칼 신청, SSI/GR 신청
• 자녀 양육비 신청
• 속성 결혼/이혼 수속
• 각종 서류 작성 대행
(213) 388-9282 (213) 909-1103

냉난방기 설치 전문업체 경력 30년 유명브랜드 냉,난방기 전문 취급업체 / 미주 전지역 LG, 현대, 위니아, 삼성총판
AMAZING 에어컨백화점
7년 연속 에어컨 1위
HYUNDAI
WINIA
SAMSUNG
에어컨 선택과 수명은 설치에 달렸습니다. LIC# 863510
323.525.0011/213.200.5388/amazingaircon.com

2010년 인구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신분과 상관없이 법으로 굳게 지켜드립니다

United States Census 2010

Use a blue or black pen.

Start here

The Census must count every person living in the United States on April 1, 2010.

Before you answer Question 1, count the people living in this house, apartment, or mobile home using our guidelines.

- Count all people, including babies, who live and sleep here most of the time.

The Census Bureau also conducts counts in institutions and other places, so:

- Do not count anyone living away either at college or in the Armed Forces.
- Do not count anyone in a nursing home, jail, prison, detention facility, etc., on April 1, 2010.
- Leave these people off your form, even if they will return to live here after they leave college, the nursing home, the military, jail, etc. Otherwise, they may be counted twice.

The Census must also include people without a permanent place to stay, so:

- If someone who has no permanent place to stay is staying here on April 1, 2010, count that person. Otherwise, he or she may be missed in the census.

1. How many people were living or staying in this house, apartment, or mobile home on April 1, 2010?

Number of people =

2. Were there any additional people staying here on April 1, 2010 that you did not include in Question 1?
Mark ✗ all that apply.

- ☐ Children, such as newborn babies or foster children
- ☐ Relatives, such as adult children, cousins, or in-laws
- ☐ Nonrelatives, such as roommates or live-in baby sitters
- ☐ People staying here temporarily
- ☐ No additional people

3. Is this house, apartment, or mobile home —
Mark ✗ ONE box.

- ☐ Owned by you or someone in this household with a mortgage or loan? *Include home equity loans.*
- ☐ Owned by you or someone in this household free and clear (without a mortgage or loan)?

5. Please provide information for each person living here. Start with a person living here who owns or rents the house, apartment, or mobile home. If the owner or renter lives somewhere else, start with any adult living here. This will be Person 1.

What is Person 1's name? Print name below.

Last Name

6. What is Person 1's sex? *Mark ✗ ONE box.*

☐ Male ☐ Female

7. What is Person 1's age and what is Person 1's date of birth?
Please report babies as age 0 when the child is less than 1 year old.

Print numbers in boxes.

Age on April 1, 2010 — Month — Day

NOTE: Please answer BOTH Question 8 about Hispanic origin and Question 9 about race. For this census, Hispanic origins are not races.

8. Is Person 1 of Hispanic, Latino, or Spanish origin?

- ☐ No, not of Hispanic, Latino, or Spanish origin
- ☐ Yes, Mexican, Mexican Am., Chicano
- ☐ Yes, Puerto Rican
- ☐ Yes, Cuban
- ☐ Yes, another Hispanic, Latino, or Spanish origin — *Print origin, for example, Argentinean, Colombian, Dominican, Nicaraguan, Salvadoran, and so on.*

9. What is Person 1's race? *Mark ✗ one or more box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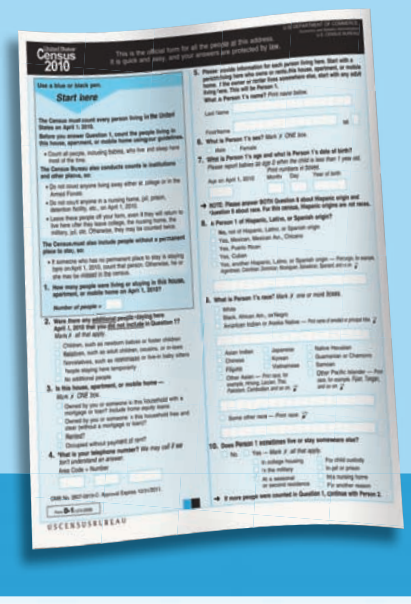
- ☐ White
- ☐ Black, African Am., or Negro
- ☐ American Indian or Alaska Native — *Print name of enrolled or principal tribe.*
- ☐ Asian Indian
- ☐ Japanese
- ☐ Native Hawaiian
- ☐ Chinese
- ☐ Korean
- ☐ Guamanian or Chamorro
- ☐ Filipino
- ☐ Vietnamese
- ☐ Samoan
- ☐ Other Asian — *Print race, for example, Hmong, Laotian, Thai, Pakistani, Cambodian, and so on.*
- ☐ Other Pacific Islander — *Print race, for example, Fijian, Tongan, and so on.*
- ☐ Some other race — *Print race.*

10. Does Person 1 sometimes live or stay somewhere else?

No — Mark ✗ all that apply.

- ☐ In college housing
- ☐ In the military
- ☐ At a seasonal or second residence
- ☐ For child custody
- ☐ In jail or prison
- ☐ In a nursing home
- ☐ For another reason

→ If more people were counted in Question 1, continue with Person 2.



10년에 한 번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집계하는 인구조사, 이 인구조사는 단순한 호적조사가 아닙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2010년 인구조사 양식은 직업훈련 증진, 교육환경 개선 등과 같이 우리 커뮤니티의 발전을 돕습니다. 또한, 양식에 기입하신 개인정보는 다른 정부기관과 공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하의 인구조사 양식을 보내주십시오. 커뮤니티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 가구 내 모든 사람은 인구조사에 참여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귀하의 개인정보는 비밀 보장해드립니다.
- 해마다 정부지원금 4,000억 달러 이상을 분배하여 우리 커뮤니티에 배정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국어 지원을 원하시면 2010census.gov를 방문하십시오.

인구조사 양식을 보내주십시오.

United States™ Census 2010

미국인구조사

우리 손에 있습니다

USCENSUSBUREAU

미국 인구조사국 제공

미국최대규모의 현대딜러 –
푸엔테힐스 현대로 오십시오

PuenteHills Hyundai
SUPERSTORE

최대의 현대딜러
최다 차량보유
최고의 서비스

북미주 현대자동차 딜러중
최대규모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푸엔테힐스 현대

푸엔테힐스 현대의 차별화 선언

첫째. 자체 융자 시스템 운영

혜택 쇼셜 번호가 없으시거나, 있으셔도 크레딧이 없으신 분들
적은 돈으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자체 융자해 드립니다.

둘째. 목회자 특별 리스 및 원가세일 단행

혜택 목회자이시면서 쇼셜이 없으신 분, 크레딧이 없으신 분과 나쁘신 분 특별 리스해 드립니다.
또한 구입을 원하실 경우 특별가격에 도와드립니다. 단, 목회자 증명서 필요

셋째. 북미 최대 단일현대 딜러

혜택 총 부지 6.8에이커로 800대의 자동차를 동시에 전시 판매할수 있으며, 편안하고 품위있는
차량구입에서 정비, 바디샵과 사후 관리까지 최첨단의 시설로 원스탑 달러로 고객만족을 위해 만전을 기함

넷째. 고객을 우선시하는 딜러

혜택 우리는 고객을 우선시하기에 아이들 놀이방 및 간식 제공, 서비스 대기시 쾌적한 공간에서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 및 차량 구입자 전원에게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 세차 및 일정의 서비스 고객들께
평생 무료 오일체인지 등과 함께 소정의 선물을 증정합니다.

다섯째. 한인 특별 융자 프로그램

혜택 쇼셜 필요 없음, 크레딧 필요 없음, 나쁜 크레딧 OK, NO DOWN, 단 방문 비자 제외

상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딜러에 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3월 한달 스페셜 세일

2010 NEW SONATA GLS



SALE $750 CASH BACK과
0% 특별이자
(O.A.C)Model #26404 in stock only

&

LESAE $179 +Tax
36Mo/12K mile
Drive off 1,499

2010 NEW ELANTRA GLS



SALE $1500 CASH BACK과
3.9% 특별이자
(O.A.C)Model #44414 in stock only

&

LESAE $179 +Tax
24Mo/12K mile
Drive off 1,499

** 푸엔테힐스 바디샵 딜러 자체내 오픈 **

검증된 기술자 채용, 최첨단 도장 처리시설 완비, 무료견인및 무료 견적, 신속하고 깔끔한 뒷처리, 모든 브랜드의 자동차 100% 소화

오픈 기념 행사 수리하시는 동안 무료 렌트해 드림. 무료 휠 얼라이먼트 해 드림. 3월 한달 방문하시거나 서비스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합니다. 직통 626-581-5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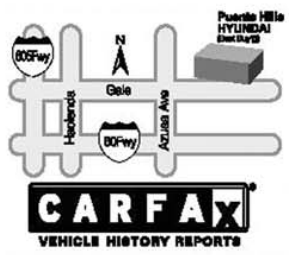
찰리 정
Fleet Manager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4.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 월-토 9:00am~9:00pm
▶ 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 월-토 7:30am~6:00pm
▶ 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한 한인담당 Mr.박을 찾아주세요"

한인타운에서 20분 거리 &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 거리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스티브 장 앤디 킴 스티브 박 지니 안

푸엔테힐스 현대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HYUNDAI Assurance
Right now, finance or lease any new Hyundai, and if in the next year you lose your income,* we'll let you return it.
*See dealer for details.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WWW.PHHYUNDAI.COM 888.644.7114